

타이완

관광 격월간 2020 Nov. - Dec.

no.37

A WALK IN TAIPEI

타이베이 서부지역 둘러보기

SPECIAL PLAN

달콤한 애프터눈 티

FOOD CULTURE

미쉐린 빙 구르망
in 타이베이

FEATURE STORY

이란

宜蘭

온천의 계절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Taiwan
THE HEART OF ASIA



INSTAGRAM



FACEBOOK



BLOG

타이완 관광 격월간 공식 SNS 계정!



최신 타이완 관광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가이드북에 소개되지 않는 현지인들의 관광지과 먹거리,
도시에서 가장 핫한 카페, 쇼핑거리와 문화 체험,
테마별로 나뉘어진 여행제안과 자세한 교통 정보,
니하오 타이완 블로그와 팬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세요.

니하오 타이완



02 Statistics

03 News

04 Column

타이완의 진정한 가치 - 전환기정의 유적을 찾아서

06 Feature Story

이란 - 온천의 계절,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18 A Walk in Taipei

타이베이 서부지역 둘러보기

24 Food Culture

미쉐린 밥 구르망 in 타이베이

31 Column

타이완 국민이 제주도에 다녀온 비법은?

32 Trail

진파스 (金瓜石) 트레일

36 Column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앞으로의 대만 여행법

38 Special Plan

달콤한 애프터눈 티 -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44 Promotion News



창간일시 2012년 5월
발행호수 37
발행일자 2020년 11월~2020년 12월
타이완관광협회 (台灣觀光協會) 회간
회장/발행인 葉菊蘭
부회장 蘇成田, 凌瓊, 莊豐如
편집고문 羅瓊雅, 鍾逸寧, 李宜潔
발행 재단법인 타이완관광협회
주소 타이베이 중사오동로 4단 285호 8F-1
TEL 886-2-2752-2898 FAX 886-2-2752-7680
E-mail yasir@tva.org.tw
WEB www.tva.org.tw
Blog blog.naver.com/visit_taiwan

사장 胡代羣
총편집 劉恩英
총감수 李建樹
기획 蘇宥勻, 莊寶琳
전문기자 劉恩英, 姜錦演, 박수정
번역 金慧媛, 金那映, 金雅煥
디자인 謝均堯, 蔡緯儒, 蔡函妍
업무부 萬麗娟, 呂麗君
발행부 江秀明, 劉乃甄
재무부 蔡慧君
마케팅 陳淑貞

주소 타이베이시 신이로 4단 265함 20층 5호
TEL 886-2-2325-2323 FAX 886-2-2701-5531
E-mail editor@v-media.com.tw
WEB www.v-media.com.tw

인쇄 혼우 채색제판인쇄유한공사
판매가 NT\$140

中華郵政北台字第1866號執照登記為雜誌交寄

타이완관광협회 서울사무소 (교통부 관광국)
주소 서울시 중구 삼각동 115번지 경기빌딩 9층 902호
TEL 82-2-732-2357-8 FAX 82-2-732-2359
E-mail taiwan@tourtaiwan.or.kr
WEB www.tourtaiwan.or.kr
발행처 시야국제문화사업유한공사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타이완여행 경험이 담긴 사진과 글을 보내주시면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타이완관광협회



<타이완>격월간



Facebook



Instagram

2020 출 입 국 JAN-AUG 인 수 통 계

타이완을 방문한 인 수 통 계 : 1,292,170 (-83.84%)
 외국인 방문객 수 통 계 : 1,026,178 (-77.79%)
 (한국 방문객 수 통 계) : 177,435 (-75.43%)
 교포 방문객 수 통 계 : 265,992 (-92.12%)
 출국인 수 통 계 : 2,229,568 (-80.91%)

2020-2019년 매달 출국하는 타이완인 수 통 계 비 교 표

월	2020년 (단위:인)	2019년 (단위:인)	성장률(%)
1	1,412,220	1,299,722	8.66
2	603,211	1,468,616	-58.93
3	101,217	1,396,026	-92.75
4	11,168	1,415,406	-99.21
5	17,611	1,463,759	-98.80
6	18,249	1,570,675	-98.84
7	28,106	1,581,016	-98.22
8	37,786	1,481,669	-97.45
통계	2,229,568	11,676,889	-80.91
9		1,372,190	
10		1,517,174	
11		1,343,563	
12		1,191,519	
통계		17,101,335	

도표1 2020-2019년 매달 타이완 방문인 수 통 계와 비 교 표

월	2020년 (단위:인)				2019년 (단위:인)				성장률 (%)		
	통계(A)	교포(C)	외국인(E)	매일 평균	통계(B)	교포(D)	외국인(F)	매일 평균	통계(A/B)	교포(C/D)	외국인(E/F)
1	812,970	226,464	586,506	26,224	867,711	331,166	536,545	27,990	-6.31	-31.92	9.31
2	357,357	27,459	329,898	12,322	956,202	394,228	561,974	34,150	-62.63	-93.03	-41.30
3	78,259	1,836	76,423	2,524	1,079,498	386,461	693,037	34,822	-92.75	-99.52	-88.97
4	2,559	642	1,917	85	1,101,393	477,716	623,677	36,713	-99.77	-99.87	-99.69
5	3,250	805	2,445	104	1,039,758	444,719	595,039	33,540	-99.69	-99.82	-99.59
6	7,491	1,166	6,325	249	932,697	400,933	531,764	31,089	-99.20	-99.71	-98.81
7	11,748	3,066	8,682	378	988,765	480,622	508,143	31,895	-99.81	-99.36	-98.29
8	18,536	4,554	13,982	597	1,030,937	460,080	570,857	33,256	-98.20	-99.01	-97.55
통계	1,292,170	265,992	1,026,178	5,295	7,996,961	3,375,925	4,621,036	32,896	-83.84	-92.12	-77.79
9					794,415	225,451	568,964	26,480			
10					939,131	230,735	708,396	30,294			
11					990,397	227,598	762,799	33,013			
12					1,143,201	286,128	857,073	36,877			
통계					11,864,105	4,345,837	7,518,268	32,504			

도표2 2020년—2019년 타이완을 방문한 한국인 인 수 통 계와 비 교 표

월	2020년			2019년		
	인수	매일 평균	성장률(%)	인수	매일 평균	성장률(%)
1	152,937	4,933	30.74	116,976	3,773	
2	22,486	775	-80.35	114,425	4,086	
3	674	21	-99.29	94,907	3,061	
4	124	4	-99.85	80,214	2,673	
5	117	3	-99.85	80,273	2,589	
6	164	5	-99.76	68,770	2,292	
7	333	10	-99.54	72,797	2,348	
8	600	19	-99.36	93,694	3,022	
통계	177,435	727	-75.43	722,056	2,971	
9				95,639	3,187	
10				125,060	4,034	
11				139,176	4,639	
12				160,667	5,182	
통계				1,242,598	3,404	

도표3 2020년—2019년 한국을 방문한 타이완 인 수 통 계와 비 교 표

월	2020년			2019년		
	인수	매일 평균	성장률(%)	인수	매일 평균	성장률(%)
1	107,016	3,452	25.44	85,314	2,752	
2	52,213	1,800	-43.98	93,198	3,324	
3	510	16	-99.47	96,303	3,106	
4	181	6	-99.83	104,067	3,468	
5	245	7	-99.75	96,995	3,128	
6	386	12	-99.66	113,507	3,783	
7	578	18	-99.45	105,993	3,419	
8	973	31	-99.12	110,351	3,539	
통계	162,102	664	-79.88	805,728	3,315	
9				101,285	3,376	
10				121,527	3,920	
11				93,575	3,119	
12				86,947	2,804	
통계				1,209,062	3,312	

통계: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

"2020 타이베이, 타이중 미쉐린 가이드" 발표

2018년 「타이베이 미쉐린 가이드」가 처음 발표된 이후, 1년에 한 번 발표되는 이 미식 평가 지표는 타이완 요식업계의 상당한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8월 발표된 2020 미쉐린 가이드는 타이베이시의 엄선된 미식을 수록하는 동시에 타이완 중부 지역으로 넘어가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타이중시의 미식을 담았다.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발표된 "2020 타이베이, 타이중 미쉐린 가이드"에는 타이베이의 170개 음식점, 타이중 56개 음식점이 수록되었으며, 그중 타이베이의 26개 음식점과 타이중 4개 음식점이 미쉐린 스타를 획득하였다. 특히, 미쉐린 스타를 받은 음식점 중 팔레드윈 호텔의 중식 레스토랑 "이궁(頤宮)"은 3년 연속 미쉐린 스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 타이완에서 유일하게 3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으로 주목을 끌었다.



미쉐린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외에도 미쉐린 가이드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맛을 겸비한 음식점 및 야시장 거리 음식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샤오롱바오, 뉴러우멘, 랑몐, 총자빙, 탕웬

등의 메뉴로 유명한 75개의 실속 있는 맛집들이 "빅 구르망"에 수록되었다.

자세한 음식점 정보는 "MICHELIN GUIDE"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한다.
guide.michelin.com/tw/en/taipei-region/taipei

타이완 중부 최초의 " 타이중 MRT 그린 라인 " 연말 개통



타이중 MRT www.tmr.com.tw

타이완 중부 최대 도시인 타이중시가 올 연말 첫 번째 시내 MRT 노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총 길이 약 16.71킬로미터, 총 18개 역이 설치된 타이중 MRT 그린 라인(우르원신베이툰선)은 베이툰 중앙역에서부터 남쪽으로 뻗어 나가며, 노선 상에는 베이툰구(北屯區)에 위치한

송주(松竹)역(타이완 철도와 교차), 남구(南區)에 위치한 다칭(大慶)역(타이완 철도와 교차)과 우르구(烏日區)에 위치한 고속철도 타이중(台中)역(타이완 철도, 고속철도와 교차) 등 철도로 환승 가능한 3개 역이 자리하고 있다.

타이중 MRT 그린 라인의 전체 노정은 약 32분으로 운행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인파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5분 간격, 한산한 시간대에는 8분 간격으로 전동차를 운행하고, 밤 11시에서 12시까지 심야 시간대에는 15분~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타이완의 진정한 가치 - 전환기정의 유적을 찾아서

한국과 타이완은 근대에서 현대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과정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으나 과거 군사정권과 정치적인 민주화 과정에서 겪은 불의에 대한 저항과 억압 등 아픈 역사가 특히 공감가는 부분이 많다. 타이완을 여행하면서 이국적인 자연과 변화한 도시에서 편하게 즐기면서 여정을 보낼 수도 있지만, 여행자와 사람들에게 대해 이해하면서 아픔의 역사와 그 가치를 해석하는 감성을 읽어보는 것도 또다른 여행의 즐거움일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타이완 전환기 불의유적 (不義遺址) 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도시 가오슝의 유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0 년은 특히 가오슝에서 발발된 메이리다오 (美麗島) 사건 40 주년을 맞아 타이완정부의 전환기 정의촉진위원회에서 과거사 청산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타이베이에서는 국가인권박물관과 육장리 공동묘지, 228 박물관 등에서 생생한 전환기 유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유은영

타이완관광지 총편집
국립대만대학교 건축도시연구소 박사후보

타이완의 민남식 전통건축과 섬세하고 실용적인 근대건축에 애착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마치 타이완 사람처럼 소박하고도 미적 감각이 살아있는 독특한 건축스타일을 찾아 소개할 예정이다.



동산무선기지대 본건축물



기지대 근린공원 벽화작품



무선기지대 내부시설



정지범 수용시설



기지대 방공호

먼저 가오슝의 전환기정의 (불의) 유적들은 백색공포라고 불리는 계엄 시기의 2.28 사건에 대한 유적이 많은데, 228 사건은 1947년 국민당 정부의 폭압에 맞서 대만 전역에서 일어난 민중봉기 사건이다. 1992년 공식 추정된 사망자만 2만 8000여명에 달했으나 사망과 실종자 전체에 대한 국가 배상 비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어 유족들에게는 아직도 진행중인 사건이다. 한국에서는 유사한 사건으로 5.18 민주화운동, 여수·순천사건, 제주 4.3 사건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2년간 한국과 연대하여 전시 및 교류를 지속하고 있어 유적을 둘러보러 보면 사람들이 남긴 메모 중 한국인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오슝 메리다오역의 잡지사와 가오슝 시립역사박물관에서는 당시의 진실을 알리는 전시를 볼 수 있다.

이번 호에 특별히 추천할 곳은 일제시기 잠수함과 교전하기 위해 설치했던 봉산무선기지대이다. 외벽이 1미터 가까이 되는 시설로서 폭격이나 총격에 안전하고 근대적인 시설건축물으로서 매우 가치있는 건축물이다. 동남아 해전을 준비하던 일본은 식민지에

무선기지대 세 곳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주건물 외에도 이 곳의 기숙사들은 전환기에 정치수용소로 쓰여졌고 수많은 정치범과 군인장교들이 이 곳에 억류되고 억압되어 있었다. 처참했던 1인감옥부터 군인장교를 위한 비교적 양호한 환경의 감옥, 방공호까지 갖가지 수용시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타이완의 전환기 유적은 되도록 그 상태로 보존해놓는다는 원칙이 있어 특별히 깨끗해보이거나 관광하기에 편리하진 않지만 그 시대의 생생한 역사의 흔적을 체험해볼 수 있다. 독일의 수용소를 방문한 듯한 엄숙함과 동네의 근린공원의 친근함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이라 생각된다.

평상시에는 인근 주민들이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넓은 공원에는 웨딩촬영도 진행되고 있어 마치 그날의 기억은 사라진듯 평온해보인다. 어떤 특별한 유적표시도 없고 관광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전환기 유적지들을 둘러보면 타이완인들의 성숙하고 독특한 아픔을 기억하는 법을 엿볼 수 있다.

전환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 란 ?

전환기정의란 과거 정치체제 전환기에서 정권이 행한 억압적인 행위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다양한 정치과정을 지칭하는 개념 (UN 2014 전환기 정의) 이다. 원래 전환기 정의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주로 중남미와 동유럽 지역에서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민주화의 정치적 전환을 겪는 동안 일어난 인권유린문제에 대해 인권운동가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연구해왔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 하여 학문 분야에서 '전환기 정의'로 부르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정리'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타이완의 경우 1987년 계엄령 해제 후 1990년 후반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여 민주진보당이 2000년 집권한 이후 본격적으로 전환기정의 (轉型正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Transitional Justice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January 2014



1인감옥시설



장교수용시설



228 운동의 본거지 메리다오역

이란

宜蘭

온천의 계절,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글 / 소유운 (蘇有勻), 장보오린 (莊寶琳) 사진 / Vision Creative

타이베이에서 차로 약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란은 타이완 북동쪽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다. 삼면이 산에 둘러싸여 있고 동쪽으로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으며, 그 중간은 광활한 평원지대로 란양시 (蘭陽溪)가 굽이굽이 흐르고 있다. 관광도시로 유명한 이란은 특히 높은 산과 숲, 전원 풍경 및 풍성한 온천 자원으로 대중들에게 익숙하다.

이란현 다통향에 위치한 해발 약 2000 미터의 타이핑산은 수려한 풍경의 자연 보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일찍이 목재를 운반하던 열차는 오늘날 여행자들을 실어 나르는 관광열차로 변신하였다. 길을 따라 펼쳐지는 산의 장엄한 경치를 감상하고 구름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구름이 산을 에워싸고 있는 경치를 때때로 목격할 수 있는데, 경치가 정말 매력적이다. 평원지대인 「웬산 (員山)」과 「동산 (冬山)」은 고산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전원 풍경을 연출한다. 이러한 전원 풍경 속에서 해안을 따라 자전거 하이킹을 하거나 하천을 따라 작은 배를 탈 수 있으며 허브 식물원 또는 위스키 공장 방문도 가능하다. 이란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마을인 자오시 (礁溪) 온천은 탄산수소 나트륨 천으로 무색무취의 풍성한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타이완에서 보기 드문 평지 온천으로 백여 개 이상의 현지 온천호텔이 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온천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타이핑산 국가삼림유락구
 이란현 다통향 타이핑향 58-1 호 (宜蘭縣大同鄉太平巷 58-1 號)
 ☎ 03-980-9806 ☏ 06:00-20:00 💰 평일 NT\$150, 휴일 NT\$200

----- 교통편 -----

1. 타이베이 기차역 (台北車站)에서 기차를 타고 이란 기차역 (宜蘭火車站) 또는 뤼둥 기차역 (羅東火車站)에서 하차 후, 버스로 환승하여 「타이핑산 국가삼림유락구 (太平山國家森林遊樂區)」에서 하차. 총 이동 소요 시간 약 4.5 시간
2. 타이베이 「시정부 버스터미널 (市府轉運站)」에서 카마란 고속 (葛瑪蘭客運)을 타고 이란 기차역 (宜蘭火車站)에서 하차 후, 버스로 환승하여 「타이핑산 국가삼림유락구 (太平山國家森林遊樂區)」에서 하차. 총 이동 소요 시간 약 3 시간
3. 타이베이 - 이란 2일 전용 차량 투어

----- 추천 여정 -----

- DAY1** 이란 기차역 (宜蘭車站) ▶ 「귀광 고속 (國光客運)」으로 환승 후 타이핑산 (太平山) 도착 (2.5-3 시간) ▶ 추이평 환산 보도 (翠峰環山步道) ▶ 타이핑 산장 (太平山莊) 투숙
- DAY2** 봉봉 열차 체험 ▶ 마오싱 옛 보도 (茂興懷舊步道) ▶ 쯤칭 옛 보도 (見晴懷古步道) ▶ 쥬즈저 온천 (鳩之澤溫泉) ▶ 치란 삼림유락구 (棲蘭森林遊樂區)





고산

蹦蹦 열차 / 蹦蹦車

타이핑산 (太平山) 을 방문할 경우,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바로蹦蹦 열차이다. 일찍이 태풍으로 인해 심한 손상을 받아 운행이 중단된 후 6년 만인 2018년에 재운행을 시작하였다. 첫 열차는 아침 07:30에 운행을 시작하며 탑승권을 구매하려는 여행자라면 타이핑 리조트에서 1박 머무를 것을 추천한다. 1박 일정으로 이곳을 방문할 경우, 이른 아침 녹음이 가득하고 피톤치드로 충만한 숲속에서 대자연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 타이핑산蹦蹦 열차는 해발 2000미터에 위치한다. 이전에는 목재를 운반하던 철도였으나, 현재는 타이완 전역 유일의 높은 해발 지역에 있는 관광 열차로 안정된 승차감을 자랑하며 길을 따라 모두에게 익숙한 디젤유 냄새와 열차 출발 시 내는 “뽕뽕” 소리로 널리 유명하다. 탑승 시간은 약 20분이며 열차는 오픈형 좌석으로 봄, 여름 타이핑산 봉오리와 봉오리가 서로 연결되어 연출되는 풍경은 물론 가을이면 붉게 물드는 단풍잎이 수놓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종착역인 「마오싱역 (茂興站)」 또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매력에 물씬 풍기는 장소로 이곳을 떠나는 발걸음을 떼기란 쉽지 않다.



- ④ 이란현 다동향 타이핑항 95 호 (宜蘭縣大同鄉太平巷 95 號)
- ☎ 03-980-9812 💰 NT\$180
- ✔蹦蹦 열차 운행 시간 7:30-15:30(한 시간에 한 번)
- ④ 입장권을 구매하여 「타이핑산 국가삼림유락구 (太平山國家森林遊樂區)」에 입장한 후, 다시蹦蹦 열차 기차역으로 가서蹦蹦 열차 탑승권 구매



마오싱 옛 보도 / 茂興懷舊步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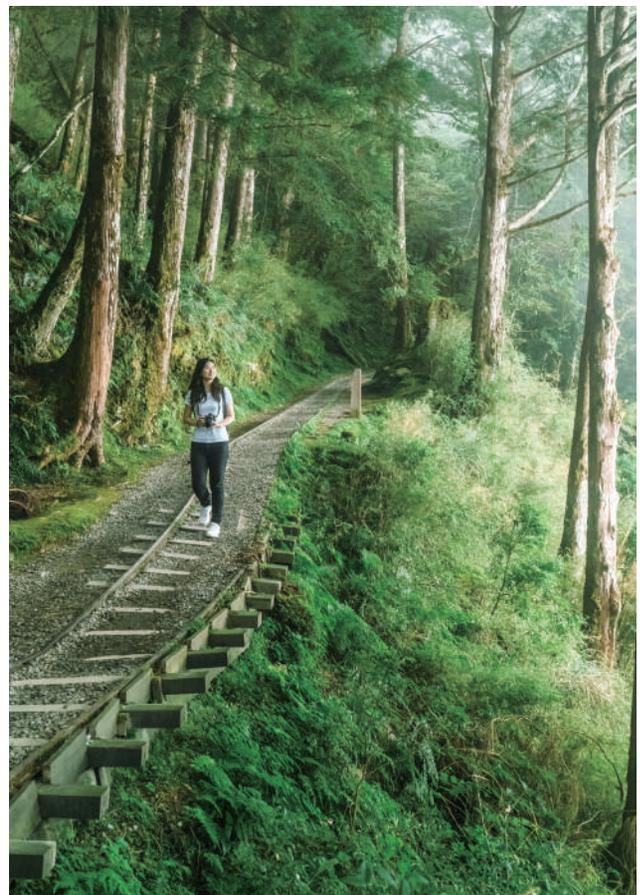
과거 고산 벌목장이었던 타이핑산은 삼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곳으로, 해발 약 1870 미터의 산속 환경은 서늘하면서도, 습하고 강수량이 많아 홍회목, 편백, 솔송, 타이완 삼나무 등 진귀한 수목류 생장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벌목이 금지된 후, 본래 목재를 운반하던 고산 숲길 역시 삼림보도로 잘 정비되어있다. 총 길이가 1500 미터인 마오싱 보도는 한차례 태풍의 타격을 입은 후 현재의 900 미터로 축소되었다. 봉봉 열차의 종착역인 「마오싱역 (茂興站)」 앞에서 열차 차장이 종을 올리는 동시에 마오싱 추억 보도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보도는 상, 하환선과 주선 (主線) 으로 나뉘는데 어느 노선이든 상관없이 아름다운 숲속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여정에서는 상환선에서 출발하는 데, 날씨가 좋을 때면 햇빛이 철도 양편에 자리한 나무 사이사이를 비추는 데 그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보도 어디에서나 보이는 거대한 수목들은 우뚝 솟아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며 나 자신이 마치 판타지 영화《반지의 제왕》속 장면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나도 모르게 카메라 셔터를 빠르게 누르며 이 순간을 담게 만든다. 보도를 다 걷고 난 후 다시 봉봉 열차를 타고 하산이 가능하다. 돌아가는 길에 눈에 담은 경치는 시간과 태양이 비치는 각도 차이로 인해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을 선사한다.





젠칭 옛 보도 / 見晴懷古步道

과거 목재를 운반하던 산간 철로였던 「젠칭 옛 보도」는 관광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후 세계에 널리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솔길 28 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곳을 방문할 경우, 철로를 따라 가벼운 마음으로 걸으며 크게 호흡하고 신선한 공기를 흠뻑 마시길 추천한다.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철도에서는 더 이상 바쁘게 움직이는 목재 운반차를 볼 수 없다. 대신 남아 있는 것은 자연에서 파생된 녹색 양치식물로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보도 중간에는 버려진 고가 철도가 자리하는 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비가 내리는 기간에 이곳에는 작은 폭포가 형성된다고 한다. 보도 끝에 다다르면 출렁 다리를 만나게 되는데, 출렁 다리는 폭이 상당히 좁아 한 번에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다.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걸어도 고개를 숙이고 산과 계천의 장엄하고 수려한 경관을 눈에 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추이핑 환산 보도 / 翠峰環山步道

추이핑 환산 보도에서 꼭 둘러야 할 명소는 바로 해발 1870 미터에 자리하고 있는 호수인 「추이핑후 (翠峰湖)」이다. 추이핑후는 타이완에서 가장 큰 고산 호수로 우기에는 호수 면이 25 헥타르에 달하며 사계절 변화무쌍한 아름답고 신비한 경관을 자랑한다. 보도를 따라 호수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데, 추이핑 호수를 둘러싼 보도를 따라 걸으며 양편의 숲을 감상하고 대자연에 안겨 있는 편안한 느낌을 체험해 보기를 추천한다. 환산 보도를 걸으며 숲속 고지대로 향할수록 호수가 보이는 각도가 또한 달라져 조롱박 모양의 호수면 역시 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호수가 보이는 목교에 오르면 호수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본 호수의 웅장한 경치는 참으로 잊기 어렵다.

치란 삼림유락구 / 棲蘭森林遊樂區

"치란 삼림유락구"는 본래 모목을 심고 키우는 묘포로 지형 경관이 독특한데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더해져 삼림유락구로 변화 발전하였고 더불어 숙박과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마가오 생태원구 (馬告生態園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목 마을로 생태원구 전체에 천 년 이상 된 홍회목과 타이완 편백나무 백 그루 이상이 자리하여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해발 약 1400 미터에 자리하는 신목 마을은 수증기 상승할 때운무가 신목 주위를 에워싸며 매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며 이곳의 신목은 모두 나무 나이와 역사 속 인물을 결합시켜 명명하여 상당히 흥미롭다.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치란 산장에서의 숙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작은 목조 주택에서의 숙박은 가족여행에 안성맞춤으로, 저녁에는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이른 새벽에는 벌레, 새우는 소리에 일어나는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며 산장 주인이 제공하는 특식도 맛볼 수 있다.



마가오 생태원구 (신목원구) 馬告生態園區 (神木園區)

- 📍 이란현 다동향 타이야로 4 단 6 호 (宜蘭縣大同鄉泰雅路四段 6 號)
- 💰 투숙객 \$570, 비투숙객 \$770 (※ 픽업 차량 요금, 가이드 해설 요금, 입산 수수료, 여행자 보험료, 청소비 포함)
- ☎ 03-980-9777 🌐 makauy.lealeahotel.com

치란 리조트 棲蘭山莊

- 📍 이란현 다동향 타이야로 4 단 6 호 (宜蘭縣大同鄉泰雅路四段 6 號)
- ☎ 03-980-9606 🌐 makauy.lealeahotel.com





평지

웬산 왕룽피 / 望龍埤

타이핑산 숲속에서 삼림욕을 마친 후, 이어서 평지인 "웬산"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특색의 관광명소를 탐방해 보도록 하자. 이란 기차역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왕룽피"는 수백 년 전 산의 홍수로 토석이 붕괴되며 형성된 호수로 호수 수위는 강수량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호수 주변에는 호수를 둘러싸고 환후 보도, 정자가 지어져 있으며 "구곡교 (九曲橋)"라고 불리는 아치형 경관 다리에서는 드넓은 호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 이란현 웬산향 전산촌 포청로 18-6 호 (宜蘭縣員山鄉枕山村坡城路 18-6 號)
- 「이란 버스터미널 (宜蘭轉運站)」에서 755 번 버스로 환승 후 「왕룽피 후산귀야오 (望龍埤 湖山國小)」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



웬산 카마란 위스키 양조장 / 噶瑪蘭威士忌酒廠

타이완 전역에서 유일하게 발효에서부터 증류, 숙성하는 위스키 공장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위스키는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하며 타이완을 대표하는 위스키로 불리기도 한다. 이곳 양조장에서는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을 견학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위스키, 리큐어 시음 기회도 제공한다. 공장에서는 판매업자들이 자체 연구 개발한 다양한 주류 제품을 판매하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험관형 작은 병에 담긴 위스키로 외형이 작고 귀여워 기념품으로 제격이다.



- 이란현 웬산향 웬산로 2 단 326 호 (宜蘭縣員山鄉員山路二段 326 號)
- 03-922-9000#1104 09:00-18:00 www.kavalanwhisky.com
- 「이란 버스터미널 (宜蘭轉運站)」에서 752 번 버스로 환승 후 「웬산 농회 성공분부 (員山農會 成功分部)」에서 하차하거나, 1786 번 노선을 타고 「사선거우 정류소 (下深溝站)」에서 하차

웬산 아르테미스 가든, 식물 박물관 / 香草菲菲 植物博物館

약 1600 평 면적의 "아르테미스 가든"은 타이완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온실전시관이자, 식물 상태가 좋기로 소문난 곳으로 넓고 환한 관내 공간은 건강에 좋은 허브향으로 가득하다. 매일 영업시작 전, 정원사들이 실내외 식물들의 위치를 바꿔주어 모든 식물들은 햇빛을 충분히 쬐고 최적의 상태로 손님을 맞이한다. 정원을 둘러보는 것 외에도 바로 위의 공중 보도를 걸으며 매달려 있는 화분들 속에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곳에서 정원의 전경도 찍을 수도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점심식사 시간이면 정원식 부페를 제공하며, 애프터눈 티 시간대에는 특별 정식 및 허브 음료를 한정 수량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안내에는 향수 DIY, 기념품숍, 베이커리가 자리하고 있다.



로즈마리 토마호크
폭잡 스테이크



- 이란현 웬산향 내이청로 650 호 (宜蘭縣員山鄉內城路 650 號)
- 03-922-9933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무) NT\$100
- 「이란 버스터미널 (宜蘭轉運站)」에서 752 번 버스로 환승 후 「타이양피 - 아르테미스 가든 정류소 (太陽埤 - 香草菲菲站)」에서 하차
- artemisgarden10103.incdoor.com

동산

동산 기차역 / 冬山車站

이란 중부에 위치한 동산은 구릉지대와 평원이 교차하는 시골마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곳을 흐르는 동산하(冬山河)는 "이란 국제 어린이 전통문화 및 민속놀이 축제(宜蘭國際童玩節)"의 개최지이기도 하다. 타이베이에서 기차를 타고 두 시간 반이면 도착하게 되는 동산 기차역은 원두막 모양의 플랫폼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기념 촬영을 위한 핫스팟으로 꼽힌다. 역을 빠져나온 후, 역 앞의 중정로(中正路)를 따라 걷다가 우선 골목 안에 있는 3D 벽화를 둘러본 후 이어서 백 년 된 곡물 창고를 개조한 "동과산 문화창의 X 농업창의원구(冬瓜山文創 X 農創園區)"로 향한다. 이곳에서는 동산에서 생산한 기념품을 쇼핑하거나 시원한 홍차로 목을 축일 수 있다. 조금 더 걸어내려가다 보면, 뉴러우몐(牛肉麵), 더우화(豆花), 총유빙(蔥油餅) 등 현지의 맛있는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동산 시장(冬山市場)"과 "동산 라오제(冬山老街)"에 당도하게 되는 데,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절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

- 📍 이란현 동산향 중정로 1호 (宜蘭縣冬山鄉中正路 1 號)
- 🚗 「타이베이 버스터미널(台北轉運站)」에서 카마란 고속(噶瑪蘭客運)을 타고 「뤼동 버스터미널(羅東轉運站)」까지 약 70 분 소요되며, 다시 1766 번 버스로 환승하여 동산 기차역(冬山火車站)에서 하차



- 📍 이란현 동산향 중정로 1호 (宜蘭縣冬山鄉中正路 1 號)
- 🚗 「타이베이 버스터미널(台北轉運站)」에서 카마란 고속(噶瑪蘭客運)을 타고 「뤼동 버스터미널(羅東轉運站)」까지 약 70 분 소요되며, 다시 1766 번 버스로 환승하여 동산 기차역(冬山火車站)에서 하차

동산

우궤다오 / 烏龜島

푸르름이 넘치는 논 중앙에 위치한 핫스팟 "우궤다오"는 이란 현지의 제 2대 경영인이 손수 만든 기념품 카페이다. 이란 사람들은 타이베이에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면 기차 창문을 통해 궤산다오(龜山島)가 보이는 순간 고향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한다고 한다. 고향에 대한 감정을 상품에 반영하기 위해 구이산다오의 모양으로 카페 건물을 디자인했을 뿐만 아니라, 인기 상품 "궤산빙(龜山餅)"을 출시하기도 하였다. 궤산다오의 형상을 본뜬 모양의 구이산빙은 엄선된 토종닭 달걀로 만든 우유 향이 진한 바삭한 쿠키로 동산차의 맛을 가미하여 맛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말차 초콜릿 장식도 더해져 탄생한 귀여운 모양과 다양한 풍미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기념품 구매를 마친 후 바쁘게 매장을 떠나지 말고 잠시 여유롭게 앉아 맛있는 수제 케이크와 다양한 음료를 맛보도록 하자.

동산

동산하 삼림공원 / 生態綠洲

동산하(冬山河) 변에 위치하며 수려한 하천 풍경, 녹음이 가득한 자연공원이다. 공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생태 초원(生態草坪)"을 통과하게 되는 데, 보도 양쪽으로 신선한 꽃과 동화적 색채로 충만한 설치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서 "숲의 맥교(森之脈橋)"를 통해 동산하를 건너 맞은편 "희망의 언덕(希望之丘)"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 전망대에서는 이란의 풍경을 360 도로 마음껏 살펴볼 수 있으며, 호빗족이 살았을 것만 같은 "다수공(大樹公)"은 깜찍한 외관으로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동화 같은 회전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서 등장하는 작은 창문들을 통해 생각하지 못한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으며, 정상에 오르면 멀리 궤산다오(龜山島)를 조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원의 90 분 여정의 유람선 가이드 코스는 동산하 삼림공원 선착장에서 전동 보트를 타고 출발하여 동굴, 습지, 철교 교량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매우 인기있다.



- 📍 이란현 동산향 동산로 2 단 172 호 (宜蘭縣冬山鄉冬山路二段 172 號)
- ☎ 03-959-1314 📞 NT\$30
- 🚗 「동산 기차역(冬山火車站)」에서 도보로 약 6 분 소요
- 🌐 facebook.com/dsrnc



겨울 온천 시즌



④ 이란현 다동향 사오웨이항 25 호 (宜蘭縣大同鄉水巷 25 號)
 ☎ 03-980-9603 ⌚ 09:00-19:00
 💰 노천 온천 / 성인 \$250, 어린이 (7-12 세) \$150, 실내 온천 / 50 분 \$700

타이핑산 쥬즈저 온천 / 鳩之澤溫泉

타이핑산 위에 위치한 「쥬즈저」는 여러 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뒤왕시 (多望溪) 가 통과하며 형성된 곳으로 주위에 많은 조류가 서식하여 이곳을 방문할 경우 온천을 즐기는 것은 물론 산골짜기를 가득 채운 풍성한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곳에는 「쥬즈저 온천」 및 「쥬즈저 자연 보도」가 자리하여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적절한 속도로 삼림욕과 산속 온천욕을 한 번에 즐기는 독특한 체험이 가능하다. 쥬즈저 온천의 천질은 약알칼리성 탄산수소 나트륨 혼합천으로 근육과 뼈, 미용에 효과가 뛰어나다. 천의 발원지는 산기슭 바위 틈으로 온천탕의 온도는 온천욕을 하기에 딱 좋은 약 38 도에서 42 도 정도이며, 맑고 깨끗한 무색무취의 천질로 목욕 후 피부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다. SPA 풀, 남녀 분리된 대욕장 및 가족 야외 온천탕 구역 등으로 구성된 온천 시설은 다양한 기호와 수요를 만족시킨다. 그중 노천탕은 태풍으로 인해 이곳에 굴러떨어진 커다란 바위에 구멍을 뚫어 바위 목욕탕을 만든 것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한다. 온천 구역에는 또한 달걀을 삶을 수 있는 DIY 구역이 마련되어 있어 온천욕을 마친 후 여행안내센터에 가서 신선한 달걀을 구매한 후 달걀을 삶는 전용 대나무 광주리를 빌려 독특한 향이 진동하는 온천 달걀을 맛볼 수 있다. 단 쥬즈저 온천에서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산에서 내려가는 버스 배차 시간표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아오 레이크쇼이 호텔 / 煙波大飯店 蘇澳四季雙泉館

평안하고 고요한 이란 수아오 작은 마을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아오위항 (澳漁港)에 인접해 있다. 이른 아침이면 세계적인 수준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바다 일출을 직접 눈에 담을 수 있다. 호텔의 정부 인증을 받은 철분 냉천과 탄산 온천을 비롯한 꼭대기 층 인피니티 풀로 인해 호텔은 오픈 이후 줄곧 객실 예약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의 온천 호텔은 대부분 객실 내 독립된 온천탕을 제공하는데, 이곳 온천의 가장 특별한 점은 「더블 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객실 내 두 개의 욕탕이 있어 여행자들은 냉천과 온천을 동시에 즐기거나 온도를 조절하여 서로 다른 온도의 온천수를 즐길 수 있다. 가족 단위로 방문해도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온가족이 온천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

레이크쇼이 호텔 LAKESHORE HOTEL

- 📍 이란현 수아오진 중정로 38 호 (宜蘭縣蘇澳鎮中正路 38 號)
- ☎ 03-996-6600 🌐 suao.lakeshore.com.tw/en/
- 🚗 「수아오 기차역 (蘇澳火車站)」에서 도보로 약 6 분 소요

수아오 콜드 앤 핫 스프링 리조트 수아오 / 瓏山林蘇澳冷熱泉度假飯店

콜드 앤 핫 스프링 리조트는 수아오 지역 최대 규모의 5성급 온천 리조트로 일 년 내내 일정한 온도의 냉천과 희귀한 탄산수소 나트륨 온천을 보유하고 있다. 리조트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좋은 산과 물, 풍성한 자연의 숨결로 이곳에 머무르는 이들에게 여유로움을 더해준다. 메인 건물은 유럽의 클래식한 저택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으며 부드러운 베이지 톤과 기둥, 아치형 장량 등 궁전식 인테리어가 어우러져 마치 화려한 작은 궁전에 들어선 것만 같은 기분이 저절로 들게 된다. 리조트의 총 객실은 152 개에 달하며 모든 객실에는 온천 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한 18 개의 온천 구역, 가족 스파, 경관 대중탕 등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레스토랑, 술집, 피트니스센터, 어린이 놀이구역 등 다양한 휴식 레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숙박과 온천에 있어 모든 연령의 여행자들에게 커다란 만족을 선사한다.



콜드 앤 핫 스프링 리조트 수아오 COLD & HOT SPRINGS RESORT SUAO

- 📍 이란현 수아오진 중원로 301 호 (宜蘭縣蘇澳鎮中原路 301 號)
- ☎ 03-996-6666 🌐 suao.rshotel.com
- 🚗 「수아오 기차역 (蘇澳火車站)」에서 도보로 약 6 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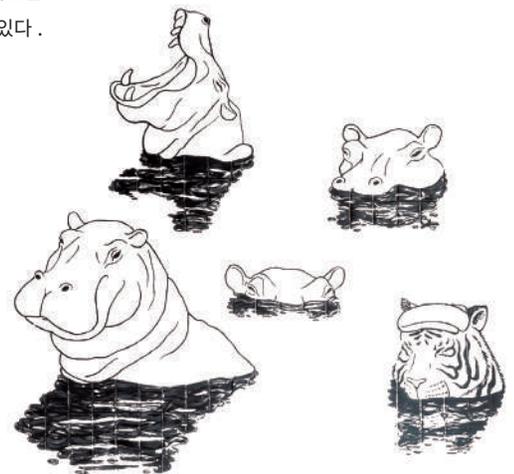


자오시 핫스프링 오니온 / 蔥澡湯屋

오래된 온천 여관이었던 "핫스프링 오니온"은 새로운 오너가 타이완 예술가와 설계사를 찾아 오래된 여관에 완전히 새로운 영혼을 불어 넣었다. 핫스프링 오니온의 중국어 이름 총짜오는 목욕한다는 의미의 "총짜오(沖澡)"와 동음이의어이며, 동시에 "파(蔥)"는 이란의 대표 농산품으로 비록 주식은 아니지만 모든 요리에서 빠져서는 안 되고, 없어서는 안 될 맛을 내듯, 온천 역시 생활 속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때때로 즐기는 온천욕은 몸과 마음에 필요한 영양분과 정기를 북돋워준다는 의미에서 일맥상통한다. 이곳은 숙박을 제공하는 일반 온천호텔들과 달리 인원수에 따라 다양한 테마의 온천룸을 제공하는데 그 중 하나인 "녹음이 우거진 백탕(蔥鬱白湯)"은 이란 특산품인 파를 주축으로 벽면을 꾸며 온천욕 시 마치 스스로가 대파가 되어 목욕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굉장히 재미있다. 테마 온천룸은 제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며 젊은이들이 앞다퉈 체험하고자 하는 인기 스팟이 되었다.

핫스프링 오니온 HOT SPRING ONION

- 📍 이란현 자오시향 자오시로 5 단 77 호
(宜蘭縣礁溪鄉礁溪路五段 77 號)
- ☎ 03-987-6929
- 🌐 www.hotspringonion.com
- 🚗 「자오시 기차역(礁溪火車站)」에서 도보로 약 5 분 소요





자오시 웰스프링 바이 실크 / 礁溪晶泉丰旅

웰스프링 바이 실크는 타이완 리젠트 호텔 그룹 계열의 호텔 브랜드로 자오시 기차역에서 멀리 우뚝 서 있는 호텔 건물이 바로 보인다. 호텔 입구의 층고가 높은 로비와 커다란 통유리를 통해 자연 채광이 이루어지며 호텔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호텔은 바로 자오시에서 가장 많은 인파로 북적거리는 큰길에 위치하지만, 그칠 새 없이 오가는 차량의 소음이 숙박 품질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체크인 시 제공하는 무료 간식거리에서부터 객실 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시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손님을 존중하는 호텔의 태도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모든 호텔 객실에는 반 야외 개인 온천탕이 설치되어 있으며, 꼭대기 층에 매력적인 경치의 노천 인피니티 풀과 스파 풀이 자리하고 있다. 호텔 주변에는 유명한 거리 음식점 및 온천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어 조금만 걸으면 자오시 현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어 상당히 편리하다.

웰스프링 바이 실크 WELLSRING BY SILKS

- 📍 이란현 자오시항 원첸로 67 호 (宜蘭縣礁溪鄉溫泉路 67 號)
- ☎ 03-910-0000
- 🌐 www.silksspring.com/kr/rooms
- 🚉 「자오시 기차역 (礁溪火車站)」에서 도보로 약 5 분 소요



자오시 저스트 슬립 이란 자오시 / 捷絲旅 宜蘭礁溪館

많은 인파로 북적거리는 자오시 상권 옆에 위치하며, 자오시 온천 광장 (礁溪溫泉廣場), 탕웨이거우 온천공원 (湯圍溝溫泉公園) 모두 도보 범위 내 위치하고 있다. 호텔 내에는 138 개 객실, 노천온천, 다용도 회의실 및 가족 오락실 등 휴식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요소들을 하드웨어 시설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상당 수 결합시켰다. 이곳 온천 호텔은 다양한 즐길 거리들로 가득하다. 객실 내에서 개인적으로 온천욕 공간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스타일의 남녀 대욕장 및 동화적 감성과 놀라움이 충만한 미로식 노천온천이 자리하여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테마 시설을 이용하며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저스트 슬립 이란 자오시 JUST SLEEP YILAN JIAOXI

- 📍 이란현 자오시항 더양로 24 항 8 호 (宜蘭縣礁溪鄉德陽路 24 巷 8 號)
- ☎ 03-910-2000
- 🌐 www.justsleep.com.tw/jiaoxi/kr
- 🚉 「자오시 기차역 (礁溪火車站)」에서 도보로 약 8 분 소요



타이베이 서부지역 둘러보기

글 / 소유운 (蘇宥勻) 사진 / 천정귀 (陳正國)



베이먼 北門

수백 여 년 전부터 발전해온 타이베이역 일대는 여전히 많은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현대화 된 거리에 남아있다. 그 중 1884년에 2층 높이로 지어진 ‘승은문 (承恩門)’이라고도 부르는 베이먼 (北門)은 흡사 견고한 장벽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옛 타이베이의 5대 성문 중 유일하게 완벽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청나라 시대의 건축물이다. 몇 백년이 지난 지금 타이베이 서부지역의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었다. 베이먼을 출발점으로 하여 북쪽으로 가면 따다오청 (大稻埕), 닝샤 (寧夏) 야시장이 나온다. 동쪽으로는 멀리 타이베이 101 빌딩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시먼딩 (西門町), 용산사 (龍山寺) 와 접해있다. 명소, 교통, 음식, 쇼핑 등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





국립타이완박물관 철도부

國立台灣博物館鐵道部

타이완 철도의 발전은 청나라 시대부터 몇 백 년을 이어왔다. 옌핑베이로 (延平北路) 에 위치한 '철도부'는 1918 년에 지어져 타이완 철도 역사를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건물로 현재는 국가 지정 고적이다. 고풍스러운 옛 건물은 리모델링 후 2020 년 철도박물관으로 정식으로 개방한다.

리모델링 후에는 청사, 전쟁당시 지휘본부, 공무원실, 전원실 등 6 가지 주제로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주 건물인 청사는 원목과 붉은 벽돌이 섞인 구조로 1 층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유럽식 목조 계단이 눈에 들어오고 양쪽에는 상설 전시공간이 있다. 1 층에는 주로 타이완 철도의 발전 연혁과 각종 기차의 진화를 전시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타이완 철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음향, 조명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타이완 철도 '취광호 (莒光號, 무궁화호와 비슷)' 열차칸 모양을 완벽하게 재현해 놓았는데 창문의 조명, 기차 운행 소리가 실제와 똑같이 깜짝 놀란다.

2 층 철도 모형 전시구역은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있는 구역으로, 1910 년대와 1970 년대 ~ 1980 년대 타이베이역 주변 광경, 도시와 역대 철도체계가 섞여 만들어진 모습을 재현하고, 다른 모양의 열차 전시를 기획했다. 10 분에 한번 '출차' 공연을 하는데 관객들의 호응이 좋다. 주 건축물 관람을 마치고 야외로 나오면 다른 독립 건축물을 볼 수 있고, 식당 두 곳이 있는데 빙수와 철도를 주제로 한 세트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출구 옆에 있는 기념품 가게에서는 철도관련 서적, 모형, 퍼즐, 장난감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전시 내용이 풍부하고 함께 즐길거리가 많은 철도부, 아이들과 함께 오기에 좋다.



철도부에서 재현한 취광호 (莒光號) 열차

이번 '타이베이 서부지역 둘러보기' 특집에서는 베이먼을 출발하여 북쪽으로 '화인제 (華陰街)'의 특색있는 작은 상점과 맛집이 있는 골목길을 탐방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한 타이완 철도역사를 기록한 '철도부'를 관람한다. 남쪽으로는 시먼딩에 위치한 타이완 수제 기념품들이 모여있는 '16 공방'과 타이완 롯데마트라 할 수 있는 '꾸이린 (桂林) 까르푸'를 방문한다. 끝으로 관광객들이 오랜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줄서서 기다리는 '삼미식당 (三味食堂)'에서 거대한 연어 초밥을 맛본다. 하루면 충분히 서부지역 곳곳을 둘러볼 수 있으니 지금부터 따라오세요!

☞ 베이먼 (北門)' 지하철역 1 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3 분

- 📍 타이베이시 따둥구 옌핑베이로 1 단 2 호 (台北市大同區延平北路一段 2 號)
- ☎ 02-2558-9790 💰 성인 \$100, 어린이 \$50 🕒 09:30-17:00 (월요일 휴관)
- 🚶 '베이먼 (北門)' 지하철역 2 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2 분; 공랑철도 '타이베이역 (台北車站)' 7 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2



추억창고 記憶倉庫

베이먼과 이웃한 '추억창고'는 과거 철도 운수화물을 보관하던 창고였다. 1914년에 지어져 지금까지 백 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고, 리모델링 후 소형 박물관과 전시공간으로 새로이 개방했다. 1층은 상설 전시공간으로 VR, AR을 통해 백 년 전의 모습을 들여다 보고 타이베이 서부지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천과정을 전시해 놓았다. 또한 휴게공간과 기념품 상점도 있다. 2층은 개방형 전시공간으로 비정기적으로 각종 도시역사와 관련된 주제 전시를 한다. 기억창고는 시민상권에 문화를 더해 주변 관광에 활기를 더했다.

- 📍 타이베이시 중정구 종사오시로 1 단 265 호 (台北市中正區忠孝西路一段 265 號)
- ☎ 02-2371-4597 🕒 13:00-21:00 (월요일 휴무)
- 🚇 '타이베이역 (台北車站)' 지하철 지하상가 Z9 출구에서 도보로 3 분

기차역 뒷편 상권 華陰街

타이베이역 뒷편에서 화인제 (華陰街) 를 따라 걷다 보면 작은 '남대문 시장'을 발견할 수 있다. 문구, 의류, 일상용품, 미용, 헤어 악세사리 등의 도매상가와 셀 수 없이 많은 선물가게가 있다. 최근에는 컵 밑바닥에 '금붕어'가 그려진 찻잔이 선물용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데, 차를 마실 때 생생하게 살아있는 금붕어가 차 속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 선물용이던 직접 사용하던 기념가치가 매우 높다.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악세사리 상점도 많은데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숨은 명소다.



이 곳에 오면 맘껏 쇼핑을 즐길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음식도 빼놓을 수 없다. 구수한 국물과 고기맛이 진한 '갈비 국수', 바삭하게 튀겨 설탕을 뿌린 '바삭도넛', 지우펀 (九份) 명소에서 직배송한 '아벤 위웬'은 화인제의 숨은 먹거리다. 반나절 일정으로 둘러보기에 좋다.

1

화인제 도매상권 (華陰街批發商圍)

- 📍 타이베이시 따통구 충칭베이로 1 단 29 호 입구 (台北市大同區重慶北路一段 29 號路口)
- 🚇 '베이먼 (北門)' 지하철역 2 번 출구에서 도보로 10 분; 지하철 '타이베이역 (台北車站)' 지하철상가 Y17 출구에서 도보로 약 3 분; 공항철도 '타이베이역 (台北車站)' 3 번 출구에서 도보로 3 분

2

신창 자기점 (新昌瓷器)

- 📍 타이베이시 따통구 충칭베이로 1 단 10 호 (台北市大同區重慶北路一段 10 號)
- ☎ 02-2556-5353 🕒 09:00-19:00 (일요일 휴점)
- 🚇 '베이먼 (北門)' 2 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8 분; 공항철도 '타이베이역 (台北車站)' 5 번 출구에서 도보로 1 분

3

바삭도넛 (脆皮甜甜圈)

- 📍 타이베이시 따통구 화인제 183 호 (台北市大同區華陰街 183 號)
- ☎ 02-2550-9914 🕒 11:00-19:00

4

아벤 위웬 (阿斌芋圓)

- 📍 타이베이시 따통구 창안시로 220 향 5 호 (台北市大同區長安西路 220 巷 5 號)
- ☎ 02-2555-6079 🕒 10:00-16:30 (일요일 휴점)

5

푸전 갈비국수 (福珍排骨麵)

- 📍 타이베이시 따통구 화인제 42-13 호 (台北市大同區華陰街 42-13 號)
- ☎ 02-2553-3337 🕒 11:00-20:00 (일요일 휴점)



당대예술관 (MOCA TAIPEI)

타이베이역 북측 창안사로 (長安西路) 에 위치한 '당대예술관'은 원래는 1921년에 학교 건물로 지어졌고, 1996년 시에서 고적으로 지정되었다. 타이완 최초 '당대예술'을 테마로한 현대미술관으로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전시 내용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작품이 내포한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료 언어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술투어, 강좌, 국제포럼 등 다양한 전시 형식을 진행하고 있다. 관람하는 연령과 기호를 고려하여 아이와 함께 즐기기, 공공예술, 고적탐방 등 참관 코스가 있으며, 1층 입구에는 창의적인 예술기념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 📍 타이베이시 따둥구 창안사로 39 호 (台北市大同區長安西路 39 號)
- ☎ 02-2552-3721 🕒 10:00-18:00 (월요일 휴관) 💰 NT\$50
- 🚇 '타이베이역 (台北車站)' 지하철가 Y5 출구에서 도보로 약 10 분



하오추 브런치 카페 (중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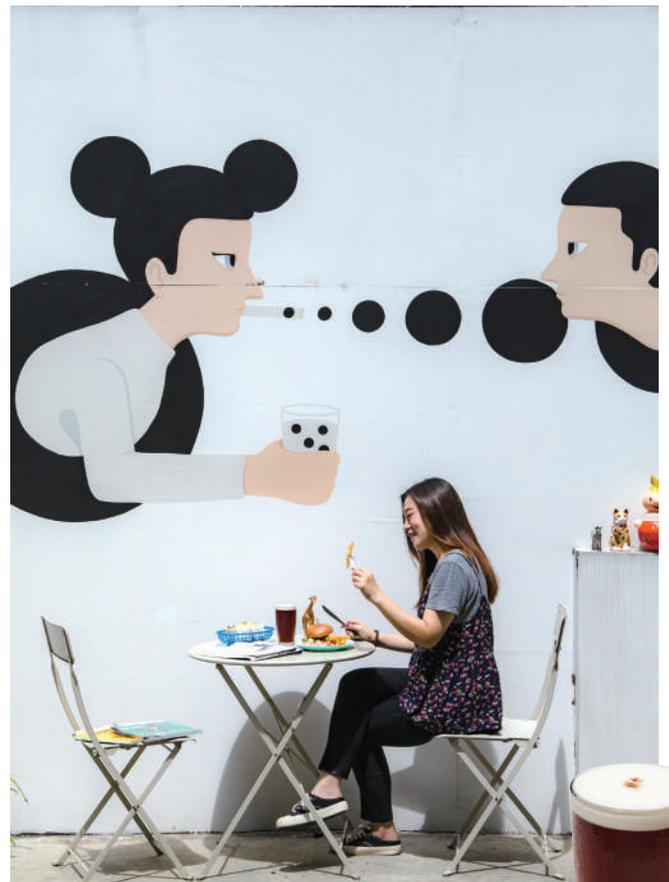
好初早餐 (中山店)

신베이시 반차오 (板橋) 구에 위치한 하오추 브런치 카페는 2011년 개업한 이후로 줄곧 인기를 받아오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2020년 초, 타이베이 시내까지 확장하여 경쟁이 치열한 중산 상권에 새로운 점포를 개장했다. 높은 인기의 이유는 맛도 좋고 창의성이 풍부하고 젊은 가계주인은 문화계와 합작을 하거나 한정 메뉴를 출시하여 특히 젊은층에게 인기가 있다.

가장 인기있는 메뉴인 '펀치 갈비 샌드위치'와 '반차오 튀김버거'가 대표적인 메뉴다. 사오싱주로 절여 만든 갈비와 반숙 달걀을 토스트 안에 끼워넣고 자르면 달걀즙이 마그마처럼 흘러내린다. 또 육즙이 꽉찬 튀김버거가 한 입 먹을 때마다 만족스럽다. 다만 전통 떡튀김과 감자 튀김을 포함한 세트는 중식과 서양식이 어우러진 맛도 좋은 평을 얻고 있다. 가게 곳곳에 가게 주인의 창의적인 작품과 아이디어를 볼 수 있다. 가게 이름인 '好初 (하오추)'의 발음이 '好吃 (하오츠: 맛있다)'의 발음과 비슷하고 직원들의 제복에도 특별히 '반차오 특산물 - 하오추'라는 표어를 새겨넣었다. 주문 대기할 때도 귀여운 동물 모형을 사용하는데 귀여움에 절로 웃음이 난다.



반차오 튀김버거



펀치 갈비 샌드위치

- 📍 타이베이시 따둥구 창안사로 124 호 1 층 (台北市大同區長安西路 124 號一樓)
- ☎ 02-2550-0700 🕒 07:30-15:00
- 🚇 '타이베이역 (台北車站)' 지하철가 Y5 출구에서 도보로 약 10 분



16 공방 16 工房

시먼 홍러우 (西門紅樓) 뒷편에 위치한 십자 모양의 건축물로 '16 공방'이라 부른다. 이곳에는 타이완 디자인 브랜드들 모여 있는데, 처음에는 창작자들에게 소비자들과 만나며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젊은 디자이너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제공했었다. 리모델링을 거쳐 2016년 셀렉트샵 (Select Shop) 콘셉트로 새로 문을 열었다. 40여 종의 타이완 현지 브랜드의 창작품을 전시 판매하는데 타이완 스타일의 디자인과 독특한 창작품 외에도 타이완 자체 브랜드의 트렌드에 대응하여 여러 브랜드들이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하기도 했다. 매주 주말 오후에는 야외광장에서 창의마켓이 열리기도 한다.



시먼 홍러우

시먼 홍러우 (西門紅樓)·16 공방

📍 타이베이시 완화구 청푸로 10 호 (台北市萬華區成都路 10 號)

🕒 11:00-21:30 (월요일 휴무) 🚇 '시먼 (西門)' 지하철역 1 번 출구



까르푸(꾸이린점) 家樂福 桂林店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장소인 시먼딩 (西門町) 상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은 특별히 24 시간 영업을 한다. 마트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인파가 많을 때는 한국 마트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한다고 하여 '타이완 롯데마트'라고도 부른다.

마트 내 곳곳에 한국어 표시가 있고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선물코너도 특별히 마련하였고, 세금 환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타이완 전국에 있는 까르푸 중 국제화 서비스가 가장 잘 갖춰진 지점이어서 한국인 관광객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24 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시먼딩 근처로 숙소를 잡은 관광객들이 사람이 적은 야간 시간에 오기도 한다. 카트 안은 물건들로 가득 채워지는데 파인애플파이, 만한대찬 (타이완식 컵라면), 젤리, 타이완 홍런볼, 맥주, 치약... 등들은 버블티에 이어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제품이다.



📍 타이베이시 완화구 꾸이린로 1 호 (台北市萬華區桂林路 1 號) ☎ 02-2388-9887

🕒 24 시간 영업 🚇 '시먼 (西門)' 지하철역 6 번 출구에서 우회전 후 도보로 약 10 분



삼미식당 三味食堂

신선한 연어 배살을 두껍게 썰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하다. 영업시간 전부터 이미 줄이 길게 서있다. 직원들이 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바꿔가며 유창하게 대기번호를 부르고 손님들은 손꼽아 순서를 기다리는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곳의 연어초밥은 크기가 손바닥만하게 큰 연어살을 초밥위에 두르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는데, 두껍게 썰은 연어 배살에 놀란 현장에 있는 손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다. 연어 지방은 알맞게 있어 많이 먹어도 느끼하지 않다. 타이완에서 유명세를 얻고 작년 한국에도 7 곳의 지점을 개점하였고 많은 한국인들과 푸드파이터가 초밥을 먹기 위해 긴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



- 📍 타이베이시 완화구 푸이양제 2 단 116 호 (台北市萬華區貴陽街二段 116 號)
- ☎ 02-2389-2211 ⌚ 11:20-14:30 · 17:10-21:30 (비정기적 휴점, FB 공고 참고 필요)
- 📍 '용산사 (龍山寺)' 지하철역 3 번 출구에서 우회전 후 도보로 약 6 분
- 🌐 www.facebook.com/862557347115944/

저우지 고기국밥 周記肉粥

용산사 상권에 위치한 '저우지 고기국밥'은 1956년에 문을 열어 3대째 이어 내려온 가게로 현지 전통 맛을 고집하여 줄곧 인기를 얻고 있다. 반개방식의 주방을 통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는 속도로 죽을 담고 음식을 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표 메뉴인 고기죽은 돼지뼈를 우려낸 국물을 사용하는데 국물이 진하고 시원하며 살갓과 말린 새우향이 난다. 으스러질때까지 끓인 죽보다 육수를 흠뻑 먹은 알알이 씹히는 쌀밥의 식감이 더 좋다. 홍사오러우 (紅燒肉)는 지방이 있는 부위와 살코기 부위를 선택할 수 있고 현장에서 즉시 잘라서 튀기기 때문에 겉은 바삭하고 육질은 연하면서도 탄력이 있으며 자체 제작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욱 맛이 있다, 죽순이 나오는 계절에만 판매하는 '죽순 샐러드'도 꼭 먹어봐야할 음식이다. 차게 만든 죽 속절편에 마요네즈를 뿌려 먹는 맛이 일품이다.



- 📍 타이베이시 완화구 광저우제 104 호 (台北市萬華區廣州街 104 號)
- ☎ 02-2302-5588 ⌚ 06:00-16:30
- 📍 '용산사 (龍山寺)' 지하철역 3 번 출구에서 우회전 후 도보로 약 3 분

칭룽피파추어

in 타이베이

미쉐린 밥 구르망

2018년 첫 번째 「타이베이 미쉐린」 책이 출간된 이후, 매년 미쉐린 가이드의 발표는 대만 미식 업계의 중대한 일이 되었다. 일반 현지인들에게는 가격이 비교적 높은 미쉐린 스타 식당 외에도, 미쉐린 가이드 중 「밥 구르망」은 품질 좋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음식점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엄선된 미식을 맛볼 수 있다. 이번 「FOOD CULTURE」에서는 타이베이 「밥 구르망」의 샤오츠(小吃)와 식당을 정선하였다. 타이베이 밥구르망을 함께 파헤쳐 보자!

글 / 소유운 (蘇宥勻) 사진 / 천정권 (陳正國), 지즈홍 (季子弘)

「밥 구르망」
선정 기준은 요리 방식이 간단하며 경교함을 잃지 않고, 세가지 요리에 약 1,300 대만 달러 (한화 약 5만 원)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고품격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을 말한다.

단지엔 감베이 사과



빙구르망식당

신예샤오궈 欣葉小聚

‘신예샤오궈’는 대만의 전통 있는 외식 브랜드 "신예타이차이 (欣葉台菜)"의 브랜드로 젊은 층을 타겟으로 메뉴를 정했으며, 옛날부터 내려오는 요리에 새로운 요소를 접목했다. 간판 메뉴인 "단지엔 간베이 쓰과 (蛋煎干貝絲瓜)"는 수세미에 조개 관자 채를 넣고 볶은 다음 테이블에 오르기 전 손님 앞에서 신선한 계란을 깨서 넣는다. 철판에서 구우면서 요리의 향기가 가득해진다. 또 다른 요리 "청룡피피추어 (靑龍皮皮挫)"는 이름만 들으면 요리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못할 것 같지만, 이 음식은 아삭아삭하고 맵지 않은 만간지 고추 (아삭고추)와 튀긴 송화단 등의 재료를 두반장으로 볶은 것인데 밥이 당기는 맛이다. 이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 "싼베이 Q 탄쭈자오 (三杯Q彈豬腳)" 고전 메뉴 "주자오 면 화성 (豬腳燜花生)"에서 소스 맛을 더 강하게 개선했다. 콜라겐이 풍부한 돼지 뒷다리에 향긋한 간장소스를 더한 것이 밥도둑이 따로 없다! 새로운 맛과 조리법을 창조하면서도 대만의 정통 요리를 유지하려 한 노력덕분에 연속으로 2년 동안 미쉐린 심사위원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한국 Olive TV 채널에서도 2019년에 대만으로 인터뷰를 왔었으며, 전통적이고 맛있는 요리로 저 멀리 해외 고객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하다.

- 📍 타이베이시 난강구 징마오옌로 166 호 1 층 (CTBC 금융원구 A 동)
(台北市南港區經貿二路166號1樓(中國信託金融園區A棟))
- ☎ 02-2785-1819 🕒 11:00-14:30·17:00-21:30
- 🌐 shinyeh.com.tw



뽕구르망식당

MY 짜오 MY 灶

작은 골목에 위치한 My 짜오는 정통 타이완 요리로 2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가 추천한 레스토랑이다. 레스토랑의 이름 My 짜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My 짜오는 우리집의 주방이란 뜻과 또 한가지 '마이짜오'라는 소리는 민남어로 '떠나지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레스토랑의 이름 뿐만 아니라 요리에서도 눈길을 사로 잡는다. 독특한 조리법에서 이곳 대표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다. '자오파이 차이푸러우 (招牌菜脯肉)'는 목살과 화련 (花蓮) 평린 (鳳林) 에서 2년간 숙성한 절인 무차이푸 (菜脯) 를 사용하여 향기도 일품이다. '야오리바이 (腰裡白)'는 돼지의 콩팥 부위를 물에 살짝 데친 후 바로 얼음에 넣어 만든다. 신선함과 쫄깃함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채 썬 마와 약간 매운 우웨이장 (五味醬) 을 곁들여 먹으면 식재료 본래의 섬세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마포 체뜨더우푸 (麻婆茄子豆腐)'에 들어가는 고추기름은 이 요리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 곳에서 직접 만든 고추기름은 향기가 코를 자극하는 데다가 달콤한 가지에서 겹겹이 느껴지는 맛은 중독성이 강하다.



타이베이시 중산구 송평로 100 항 9-1 호 (台北市中山區松江路 100 巷 9-1 號)
02-2522-2697 화 - 일 11:30-14:00·17:30-21:30 (월요일 휴무)



마오위엔 茂園

1971년에 문을 연 대만식 해산물 식당이다. 식당 문 앞 냉장고에는 당일 잡은 신선한 해산물과 식재료가 가득하다. 요리는 당일 식재료에 맞춰서 제공되기도 하며, 블랙 보드에 적혀져 있는 간판 요리를 주문할 수도 있다. "바이잔지 (白斬雞)" 는 이곳의 간판 요리다. 차게 무친 닭고기는 연하고 육즙이 많으며, 육질이 탄탄하고 콜라겐이 풍부하여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주문한다. 전통적인 대만 요리 방법으로 만든 "썬니시엔커 (蒜泥鮮蚶)" 의 굵은 살이 통통하고 정말 밥과 잘 어울린다. "샤쥐엔위화즈완 (蝦捲與花枝丸)" 은 통 새우와 야채를 달라붙지 않게 밀가루를 뿌려 주고 바삭하게 튀겨낸다. 한 입마다 탱글탱글한 새우, 그리고 오징어 볼 안에는 커다란 오징어 토막이 있다. 기름으로 튀겨내 정말 맛있고 쫄깃쫄깃함을 느낄 수 있다.

타이베이시 중산구 창안동로 2 단 185 호
(台北市中山區長安東路二段 185 號)
02-2752-8587 화 - 일 11:30-14:00·17:30-20:30





덴쉐이로우 點水樓

중국 장난 (江南) 요리로 유명한 덴쉐이로우에서는 중국 장수, 저장 지역 음식과 상하이 간식을 맛볼 수 있다. 난징점 실내는 회색 벽돌 벽과 작은 다리를 비롯해 중국 본토에서 가져온 태후석을 이용해 고전적이면서도 우아한 장난 지역의 풍경과 분위기를 연출해 놓았다.

난징 (南京) 점은 현재 덴쉐이로우 지점 중에 가장 다양한 종류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분점으로 샤오롱바오만도 8 가지 맛에 달한다. 그중 쥬청타 샤오롱바오는 덴쉐이로우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샤오롱바오로 속은 흑돼지고기와 바질을 조화롭게 배합하였으며 겉피에도 바질을 넣어 겉은 청록색이며 바질향이 나고 소스를 찍지 않고 먹어도 아주 맛있다. 그 밖에 오리지널 맛, 마라, XO 소스, 비취 (수세미와 새우), 송로, 게살 (게알) 맛을 비롯해 기호에 맞는 샤오롱바오가 선택 가능하다.



- 📍 타이베이시 송산구 난징동로 4 단 61 호
(台北市松山區南京東路四段 61 號)
- ☎ 02-8712-6689
- 🕒 11:00-14:00 • 17:30-21:00

티엔사산쥐에 天下三絕

타이베이 동취의 골목에 위치해 있다. 가게 외관은 일반 서양식 레스토랑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하얀 대리석 탁자, 금색의 액자 틀 그리고 서양 벽화, 흘러 나오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 만약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우육탕 향기가 아니면, 아마 당신은 여기가 대만 서민 음식 "우육면 (牛肉麵)" 을 파는 곳이라고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가게 안에는 소고기 부위마다 각각 다른 가격으로 책정하며, 면의 굵기 또한 선택할 수 있다. 더욱이 특별한 것은 음식을 먹을 때 와인을 곁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억 속에 우육면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고스러운 인상을 줄 것이다. 이 식당의 비결 소스 외에도 직접 매운 소기름을 제련한다. 썬라장 (蒜辣醬) 은 정말 최고다. 그릇에 조금만 넣으면 전체적인 향긋한 향이 더 배가 된다. 간판 우육면은 사태, 쇠꼬리, 아롱사태, 소 힘줄 이렇게 네 가지 부위를 사용하며, 육수는 공들여 열 시간 동안 끓인다. 그래서 매우 맑고 잡내가 나지 않으며, 기본 국물의 양파와 토마토가 시고 단 맛의 홍사오 (紅燒) 의 맛을 더욱 진하게 만든다. 비록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지만, 미식가들의 성지순례 장소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 📍 타이베이시 따안구 런아이로 4 단 27 향 3 호
(台北市大安區仁愛路四段 27 巷 3 號)
- ☎ 02-2741-6299
- 🕒 11:30-14:30 • 17:30-20:30



빤구르망
제가맛집



샤오왕주과 小王煮瓜

화시제 (華西街) 야시장에서 45년 동안 영업을 눈에 띄지 않는 작고 오래된 노점상이다. 지금은 2대째 내려와 경영하며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하여 젊은 세대가 계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노점상은 전통의 맛이 가득한 루러우판 (滷肉飯), 칭탕과쯔로우 (淸湯瓜仔肉) 그리고 각종 대만식 반찬을 중점적으로 팔고 있다. 비계와 살코기가 적절히 섞여 있는 돼지고기 토막은 오랜 시간 동안 푹 고아서 입에 넣자마자 녹아 버린다. 소스는 너무 짜지 않고, 먹은 다음 입에 약간 찢찢득득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루러우판이 정화 (精華) 되었다는 의미한다. 과자이로우는 대만 가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간단한 요리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것만 있으면 밥을 몇 그릇 먹을 수 있을 정도다.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와 돼지 러우경 (肉羹) 그리고 전통 화과 (花瓜) 를 넣어 국을 끓인다. 화과의 아삭함과 러우경의 탱글탱글함이 동시에 입에서 폭발처럼 터진다. 이런 전통 음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옛날 어른들의 손맛이 그리운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전통의 맛을 느껴 보길 바란다.



- 📍 타이베이시 완화구 화시제 17-4 호
(台北市萬華區華西街 17-4 號)
- ☎ 02-2370-7118
- 🕒 09:30-20:00 (화요일 휴무)

뤄찌샤오차오 駱記小炒

오후 다섯 시쯤 막 문을 연 가게에는 주문을 한 손님들이 앉아 있다. 비록 이곳의 메뉴는 다양하진 않지만, 모든 음식들이 다 밥이 당기는 음식들이다. 술안주 중 무조건 주문해야 할 "채첩 볶음 (炒蚵仔)" 은 러차오 (熱炒) 계의 제왕이다. 이것 한 그릇만 있으면 아마 밥 세 공기는 거뜬할 것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고기 볶음 또한 인기가 고공행진이다. 사장님은 재빠르게 공심채와 신선한 소고기를 중화요리용 팬에 넣고 센 불에 빨리 볶아, 3분도 채 되지 않아서 매콤한 "차오니우로우 (炒牛肉, 소고기 볶음)" 가 상에 오르고, 이때 대만 맥주를 더하면 정말 입맛에 딱 맞는다.

- 📍 타이베이시 따안구 통화제 39 항 50 농 27 호
(台北市大安區通化街 39 巷 50 弄 27 號)
- ☎ 02-2708-1027
- 🕒 17:00-00:00 (화요일 휴무)



량찌루웨이 梁記滷味

저녁 여섯 시가 되기 전, 이미 노점상을 풀어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손님들이 줄을 서는 곳이다. 정각이 되어서야 재료를 가득 가지고 나타난 사장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점상에 아직 불을 켜지 않았더라도, 손님들은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집게로 재료를 집어 든다. 티엔부라 (甜不辣: 오뎅), 바이에또우푸 (百頁豆腐), 지신 (雞心: 닭 염통), 따창터우 (大腸頭: 막창) 모두 제일 빨리 소진되는 재료다. 사장님은 하나하나 잘 잘라서 포장하고, 직접 만든 쑤차이 (酸菜) 와 소스를 넣는다. 그리고 신선한 잘게 썬 파를 위에 뿌리면 한 입 먹을 때마다 향기로운 특제 소스가 코안에서 진동을 할 것이다. 너무 짜지 않은 전통적인 방법 또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속으로 2년 동안 미쉐린의 호평을 받았던 이유가 있다.

- 📍 타이베이시 따안구 통화제 39 항 50 농 33 호
(台北市大安區通化街 39 巷 50 弄 33 號)
- 🕒 17:50-01:30 (화요일 휴무)





양배추밥 & 갈비탕

高麗菜飯 & 原汁排骨湯



가게 안 작은 공간에 벽돌로 만든 부뚜막이 놓여있다. 뼈와 살들은 솥 안에서 푹 고아지고, 옆에선 잘볶아진 "양배추밥 (高麗菜飯)" 을 한 그릇 가득 채워 테이블에 올린다. 여기는 가게 이름이 없다. 그러나 이 작은 야시장 상권 안에선 입소문이 잘 나 있는 곳이다. 손바닥보다 더 큰 고기를 나무젓가락으로 집으면 뼈와 살이 쉽게 분리되는데, 이 고기에 무를 넣고 끓인 국을 곁들이니 맑고 향기로우며 끝에는 단맛이 돌아오는 느낌이다. 촉촉한 양배추밥은 영양 가득한 오크미가 섞여 있으며, 고슬고슬하니 느끼하지도 않고, 맛이 수수한 것이 할머니의 손맛 같은 그리운 맛이다.

📍 타이베이시 따통구 옌핑북로 3 단 17 향 2 호
(台北市大同區延平北路三段 17 巷 2 號)
🕒 06:00-19:30 (월요일 휴무)



따차우도우 팡아미고 大橋頭筒仔米糕

자매 네 명이 부모님에게 직접 배워 계속해서 가게를 이어오고 있다. 노점상에서부터 시작해 가게를 차렸다. 또한 냉동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더욱이 2년 연속 "뽕 구르망" 에 선정되었다. 가게 안의 인테리어는 매우 간단하고 메뉴도 많은 편이 아니다. 이곳에서 꼭 먹어야하는 "팡아미고 (筒仔米糕)" 는 원래 대만 중남부 음식이었는데, 맛이 있어 타이베이에서도 이름을 알려지게 되었다. 이곳의 미가오는 비계와 살코기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고, 식감을 더 좋게 하기 위하여 이 가게에서는 전통 방식에 쓰이는 기다란 찹쌀을 쓰지 않고, 둥그란 찹쌀을 사용한다. 찹쌀밥 위에 이 가게만의 특제 소스를 부으면 향기가 사방에 퍼지며 위를 자극하고 간이 너무 짜지 않으면서 맛이 있다.

📍 타이베이시 따통구 옌핑북로 3 단 41 호 (台北市大同區延平北路三段 41 號) 🕒 06:00-16:00 (화요일 휴무)

슌찌총좌빙

雄記蔥抓餅

공관 (公館) 의 학생들이 드나드는 상권에 위치해 있다. 주위에는 특색 있는 음식과 보통 가격 맛집이 매우 많다. 이 가게의 이동 가판대는 작고 눈에 띄지 않지만, 이미 이곳에서 30여 년 장사를 해오고 있으며, 학생들의 꼭 먹어야 할 맛집이다. 총좌빙 (蔥抓餅) 의 맛도 다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를 넣을 수 있다. 두 면은 바삭바삭하게 부쳐서 쫄깃쫄깃하고 씹을수록 맛이 더 깊은 느낌이다.

📍 타이베이시 중정구 웨스푸로 4 단 108 향 2 호 (台北市中正區羅斯福路四段 108 巷 2 號)
🕒 15:30-00:30



호평요우 냉면 好朋友涼麵

스린 야시장은 해외 여행객이 인정한 대형 야시장이다. 200 개 넘는 대만 음식 노점상이 모여 있는데, 그 중 뽕 구르망에 선정된 호평요우 냉면은 대기 줄이 엄청난 가게다. 대만식 냉면의 특징은 면에 고소하고 달콤한 개 소스를 넣는데, 그 위에 특제 고추기름을 넣으면 맵고 시원한 느낌이 해외 여행객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 타이베이시 스린구 따난로 31 호 (台北市士林區大南路 31 號)
☎ 02-2881-1197
🕒 17:30-23:30 (목요일 휴무)





위핀위엔 빙휘탕위엔

御品元冰火湯圓

랴오허 (饒河) 야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위핀위엔 빙휘탕위엔 (御品元冰火湯圓)"은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늘 만석이다. 빙휘탕위엔은 이름 그대로 뜨겁게 익힌 탕위엔을 얼음 위에 놓아서, 차가움과 뜨거움이 만나 가장 특별한 맛을 선사한다. 간판 메뉴인 "계화탕위엔콤보 (桂花綜合湯圓)"은 땅콩, 깨 두 가지 맛의 탕위엔이다. 가게에서 직접 만든 꾸이화미빙을 곁들여 먹고, 탕위엔을 다 먹은 다음 레몬즙과 얼음을 넣어 먹으면 신맛과 단맛이 어우러져 참 잘 어울린다.

**빚구르망
제가맛집**

- 타이베이시 송산구 랴오허제 178 호
(台北市松山區饒河街 178 號)
- ☎ 0989-647-826
- 🕒 일 - 목 17:00-00:00 · 금 - 토 17:00-00:30

우왕짜이찌 룬빙쥐엔전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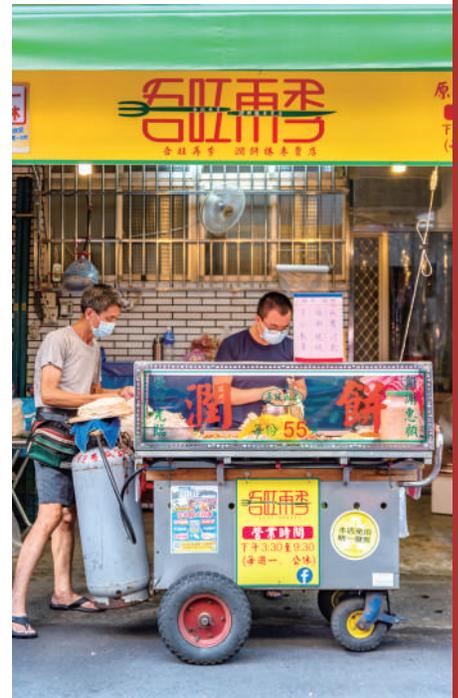
吾旺再季潤餅捲專賣

연속으로 2년 동안 "빚구르망"에 선정된 룬빙 노포다. 매일 오후 세 시 반부터 영업하는데, 가게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매일 200개 한정으로 더울 때나 추울 때도 사람들의 성지 순례가 끊이지 않는다. 룬빙쥐엔 안에는 열 가지 각각 다른 재료가 가득 차 있으며, 모두 당일 재료로 그때그때 만든다.



다른 룬빙들과 차이 점은 이곳에는 두 장의 피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속 재료가 두툼하고 실하며, 땅콩가루의 고소하고 단맛과 튀긴 식물성 고기의 바삭함, 콩나물과 건두부의 짭짤함 모두 이 집의 룬빙의 대표적인 평가다. 만약 이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면 일찍 부지런히 나서서 줄을 서 보길 바란다.

- 타이베이시 중정구 중화로 2 단 313 항 29 호 (台北市中正區中華路二段 313 巷 29 號)
- ☎ 0930-406-677 🕒 15:30-21:30 조기소진 시 마감 (월요일 휴무)



이름 없는 전통 샤오빙

無名手推車燒餅

이곳은 난지창 (南機場) 야시장의 골목 안에 위치해 있다. 두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자 사장님은 바쁘게 반죽을 비벼서 안에 실파, 팔, 맥아당 가루를 넣는다. 남자 사장님은 가스로 예열을 하며,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이곳은 메뉴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다. 단맛과 짠맛 두 종류뿐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각기 다른 맛의 전통 시엔빙을 먹어볼 수 있다. 시엔빙의 맛은 불 조절하는 사람의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가게는 일반 베이커리와 다른 차별화된 오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남자 사장님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하나 약한 불로 굽고, 적당한 시간에 뒤집어서 타지 않는다. 삼십 년 동안 견고하게 지킨 소박한 맛이 많은 사람이 어렸을 적 작은 가판대에서 먹었던 기억을 상기시켜 좋은 평가를 받은 원인이 아닐까 싶다.



- 타이베이시 중정구 중화로 2 단 315 항 5 능 (台北市中正區中華路二段 315 巷 5 弄)
- 🕒 16:00-20:00 조기소진 시 마감 (일요일 휴무)

타이완 국민이 제주도에 다녀온 비법은 ?

타이완 국민의 여행법, 코로나도 이긴다

강호연

따뜻한 타이완인들의 인정에 반해 시작한 타이완 생활. 매일이 새롭고 행복한 타이완 일상을 만난지 5년차 직장인. 최근 유튜브 '바른외국생활' 채널로 타이완 일상 소식을 전하는 중!



이제는 그만 듣고 싶은 말, COVID-19 (코로나).

타이완은 수개월 째 신규 지역감염자수 0 을 유지하며 국내방역에 성공하고 있지만, 해외여행이 막힌것은 전세계 여느 나라와 같다.

매년 국민의 약 50% 가 해외여행을 하던 타이완국민들로서는, 반년넘게 해외여행이 막히자 힘들어 하면서도 나름의 방법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타이완국민들의 여행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안심여행기간

타이완정부와 교통부는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자, 발빠르게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7 월 1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를 안심여행기간으로 선정하고, 국내 숙소를 예약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숙소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1,000 타이완달러 ~ 2,000 타이완달러로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가가 나서 여행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제주 여행, 달빛 여행

지난 9 월 19 일, 타이거에어와 한국관광공사는 타이완의 공항을 출발해 제주도 상공을 돌아오는 항공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항공기에 탑승해 기념품으로는 한식을, 제주도 상공을 돌아보면서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 월 추석을 맞아 Starlux 항공사는 보름달 맞이 상품도 내놨는데요. 10 월 1 일 ~ 10 월 2 일간 총 6 차례에 걸쳐 항공기를 상공에서 보름달 보는 상품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타이완 국민의 창의성은 이런데서도 빛을 발하는것 같아요.



타이완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

한 타이완 국내여행사에서 발표한 숙박 통계에 따르면 화련, 이란, 타이난, 타이둥, 타이중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람들도 강원도 제주도 등 바다근처의 여행이 두드러진 것 처럼 타이완 여행객들도 화련 이란 타이둥 등 해안근처로 많은 여행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타이완 여행에는 도시도 좋지만,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를 꼭 방문해보면 어떨까요 ?



진파스

트레일

金瓜石

글 / 리젠수 (李建樹) 사진 / Vision Creative

타이완 본섬 동북부에 위치한 진파스는 지우편 (九份), 웨이난동 (水滴洞) 과 이웃하고 있는 관광명승기도 하여 ‘웨이진지우 (水金九)’ 지역이라고도 부른다. 세 지역의 작은 산간 마을은 과거 한때 광업이 번성했지만 지금은 추억이 담긴 거리풍경과 광업 유적으로 유명하다. 지우편 라오제, 진파스 황금박물관, 스썬청 유적지는 관광안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추천 명소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진파스는 최근 몇 년 사이 하이킹 활동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빠오스산 트레일 (報時山步道)’, ‘무적 바다풍경 트레일 (無敵海景步道)’은 모두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트레일 코스는 황금박물관, 치탕 라오제 등의 명소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여 하이킹뿐만 아니라 박물관 구경과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다.

☉ 중샤오푸싱 (忠孝復興)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지룽버스 1062번 버스 탑승하여 첸지탕 (勤濟堂) 에서 하차

報時山步道

빠오스산 트레일 

진파스 트레일 추천코스는 '첸지탕 (勸濟堂)' 위쪽 주차장에서 출발한다. 타이베이에서 이곳으로 오는 버스가 있는데, 1 시간 30 분정도 소요된다. 첸지탕은 관우 (관성제군) 를 모시고 있는 사당으로 백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사당은 현지 신앙의 중심지다. 출발 전 이곳에 들러 높이가 10 미터에 달하는 관우상도 볼 만하다.

빠오스산 트레일 입구는 주차장 옆에 있고 길은 166 미터로 짧은 편이다. 안내표시를 따라 올라가면 10 분도 안돼서 도착지점인 전망대에 다다르는데 경사가 완만해서 걷기에도 좋아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하기 좋다. 가을과 겨울철에 오면 역새가 만발하다. 전망대에 오르면 360 도로 경관을 내다볼 수 있고, 웨이난동 (水湳洞), 인양하이 (陰陽海), 차후산 (茶壺山), 지룽산 (基隆山) 의 산과 바다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주차장 옆에는 또 '류컹 비탈길 철로 (六坑斜坡索道)'가 있는데, 과거 광산 물과 물자를 나르던 운송수단이었고, 지금도 유적을 볼 수 있다. 또한 운반차가 운행하는 부분 철로이기도 하다. 현재는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벽면 일부만이 남아있는데 버려진 폐허와도 같은 곳에 푸른 바다와 하늘, 산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인스타그램의 인기명소가 된 곳이다.





祈堂老街

치탕 라오제 🍌

첸치탕 아래에 위치한 치탕 라오제는 예전 광부들이 생활하고 물건을 사던 상업적인 거리였다. 화재가 나고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몰락하게 되었고, 인근에 지우편이 관광으로 발전하면서 오랫동안 인적 없이 적막했던 치탕 라오제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라오제에 있는 가옥은 산세에 따라 지어서 계단과 작은 골목이 뒤얽힌 거리는 현지의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냈다. 이곳에 오는 관광객수가 지우편 처럼 그리 많지 않아 아직까지 예전의 거리 분위기를 잘 간직하고 있다. 상업이 발달한 곳은 아니지만 길 양쪽에는 잡화점, 카페, 음식점 등 몇몇 상가가 있고, 봄비는 곳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나 편하게 거닐고 싶거나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최근 인스타그램 인기 명소가 된 라오제의 무지개 계단

상가는 많지 않지만 유명한 맛집인 '갈치 쌀국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 전통 음식점은 첸치탕 왼쪽에 위치해 있고, 내부는 가정집 같은 분위기에, 메뉴도 간단하다. 메뉴는 쌀국수와 몇 가지 튀김류가 전부여서 소박해 보이지만 맛을 보고 다들 깜짝 놀라는데, 특히 바삭하게 구운 갈치는 육즙이 가득하고 부드럽다. 카페에 가고 싶다면 치탕로 깊은 곳에 'Cafe & me'가 있다. 라오제의 복고풍 벽돌집 2층에 위치해 있는데 알록달록한 붉은 벽돌과 복고풍의 쇼파는 라오제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잘 어울리며 정겨운 풍경이 마치 타이캡슐을 타고 과거로 온 듯한 느낌을 준다.



갈치 쌀국수

☎ 신베이시 웨이팡구 치탕로 43 호
(新北市瑞芳區祈堂路 43 號)
☎ 02-2496-1458 ☑ 11:00-15:00 · 주말 9:00-17:00

Cafe & me

☎ 신베이시 웨이팡구 치탕로 99 호
(新北市瑞芳區祈堂路 99 號)
☎ 0916-036-633 ☑ 12:00-19:30

金瓜石 地質公園 **진파스 지질공원** 🍌🍌

치탕 라오제를 벗어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황금박물관’에 다다른다. 박물관에는 지우편, 진파스의 채광 역사, 광산업 문물, 황금관련 지식을 전시하고 있다. 넓게 자리하고 있는 공원은 광산경도와 전통 목조건물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박물관 남쪽에 있는 ‘진파스 지질공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무적 바다풍경 트레일’, ‘본산 광장 석진’이 두 명소로 유명해졌고, 인스타그램에서 진파스 가장 인기 있는 명소기도 하다. 박물관에서 앞으로 가다 보면 40 분 정도 계단을 올라야 하는 길이 있는데, 마냥 걷기에는 쉽지 않으니 본인의 체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공원 안의 ‘본산 광장’은 원래 야외 채굴지였는데 절벽 양쪽이 평평하게 깎여 암석이 드러나 있고 절벽 중간에 있는 길에는 석진들이 놓여져 있다. 주황색 암석, 암벽 위의 녹색식물, 정갈하게 놓여진 석진은 신비감을 자아낸다. 본산 광장 옆에 위치한 무적 바다풍경 트레일은 정상에 올라 고개를 돌리면 끝없는 해안과 산간 도시가 눈에 들어온다.



황금박물관
 📍 신베이시 웨이팡구 진파스 진광로 8 호 (新北市瑞芳區金瓜石金光路 8 號)
 ☎ 02-2496-2800 🕒 9:30-17:00 · 휴일 9:30-18:00 (매월 첫 패주 월요일 휴관)
 💰 NT\$80 🌐 www.gep-jp.ntpc.gov.tw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앞으로의 대만 여행법

올해는 갈 수 있을까?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다. '잠시 멈춤'인 줄 알았던 여행은, 이제 한동안 '서행'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여행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한다. 하늘 길이 열린다면 어떻게든 우린 다른 방식으로 여행하게 될 것이다. 대만은 그중 우리에게 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 대만 여행법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 최근 한국인들의 여행 트렌드와 대만 관광의 장점 세 가지를 엮어보았다.



박수정

동남아 여행 전문 블로거다. 1년에 절반은 해외에 있어 오히려 한국을 여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겼다. 현재는 가이드북을 쓰고 있으며, 때때로 강의도 한다.



네이버 검색 : @망고요정 인스타그램 : @mango_nomad

프라이빗 택시투어

블로그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트렌드도 알게 된다. 올해는 의외로 인기를 끈 것이 '드라이브 코스'다. 여럿이서 붐비는 대중교통을 타는 대신 프라이빗하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잘 알다시피 '택시투어'의 원조는 대만이기도 하다. 가격도 한국의 반값이다. 앞으로의 대만 여행법이라면 이러한 프리미엄 이동 서비스가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창기에는 예스 진지 (예류, 스펀, 진과스, 지우펀) 위주로 다녔다면, 이제는 사람이 덜 붐비고 야외 활동 가능한 소도시로 루트가 확장되지 않을까.

v 추천 여행지 : 화련 타이루거 협곡, 이란 돌고래 투어



호텔의 개별 서비스



한국에선 집콕과 여행 사이 '호텔콕'이 늘었다. 집에만 있기엔 답답하니 하루쯤은 호텔이라도 '콕'하고 박혀있겠다 뜻이다. 특히 국내 호텔 중에서도 독채, 풀빌라, 프라이빗 노천탕이 있는 곳은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그렇다면 대만은 어떨까. 이미 프라이빗 온천 숙소가 많은 나라다. 게다가 만나질 개별 온천 체험 후 애프터는 티를 맛보는 투어는 이미 한국인들 여행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자원이 있으니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호텔 조식이다. 대만의 한 호텔이 떠올랐다. 개별로 휘귀를 제공해줬는데 뻥튀기 음식보단 지역 음식을 단품으로 선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여행지의 감성을 채워주는 느낌이었다.

v 추천 호텔 : 우라이 볼란드 프라이빗 온천, 타이베이 파파웨이

친환경 여행지

한국은 코로나 19 이후 최장기간 장마, 연이은 태풍 피해까지 거치며 기후변화 문제를 정면으로 실감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여행도 환경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여행법을 고민하는 추세다. 물론 나 또한 친환경 여행이라니 당장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이 드는 건 마친가지다. 그래도 나만의 작은 여행법 중 하나는 '개발'보다는 '재생' 공간을 찾아가는 일이다. 대만은 버려진 공간을 예술로 승화해 관광지로 연결하는데 탁월하다. 한동안 한국 여행자들에게 타이베이 필수 코스로 꼽혔던 '화산 1914'도 그렇다. 원래 양조장이던 곳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앞으로는 친환경 여행이 중요해지면서 도시 재생 공간을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는 일에도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v 추천 여행지 : 타이베이 화산 1914, 타이베이 보장암 국제예술촌, 타이중 레인보우 빌리지



달콤한 애프터눈티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글 / 소유운 (蘇宥勻)
사진 / 지즈홍 (季子弘), Vision Creative

애프터눈 티는 지역의 문화와 음식 습관에 따라 다른 형식을 띄고 있다. 대만은 버블티같은 음료수, 한국 사람들에게는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구미 (歐美) 지역에는 향기롭고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그런데 완벽한 애프터눈 티를 위해서는 음료, 디저트 외에도 정성이 가득한 공간의 분위기가 필요하다. 레트로와 모던이 결합된 신비로운 카페, 간결함의 미학이 결합된 대만 다예 (茶藝)를 즐길 수 있는 작은 찻집, 2층에 숨어있는 간판 없는 오래된 카페, 그리고 타이베이 101 빌딩을 바라보며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호텔 애프터눈 티 등 이번에는 타이베이 군데군데에 있는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정선해 보았다.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함께 탐색해보고, 독자들이 여유롭고 만족할 수 있는 오후를 체험해볼 수 있길 바란다.



鶺鴒 Kasasagi Coffee Roasters

저에겐 커피가 있어요, 당신에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완전 예약제, 아주 은밀한 곳에 위치. 구글 지도의 키워드를 찾아볼 수 없음. "鶺鴒 Kasasagi Coffee Roasters" 카페는 2019년 말 개업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지하실로 내려가면, 시야에 호박색 노란 조명 그리고 레트로 느낌 가득한 대만의 사문석 테이블이 들어오고, 카페엔 대만의 고전 명곡이 흘러나온 것이 마치 시간의 터널을 지나 1988년으로 돌아온 느낌이 든다. 인정미 가득했던 그때는 카페 사장이 태어났던 시대이기도 하다. 카페의 위치는 카페 사장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곳인데 디자인 설계부터 리모델링까지 꼬박 일 년이 걸렸다. 카페 사장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스타일의 카페와 대만의 요소들을 인테리어에 녹여낼 수 있었다. 그런 까닭에 카페 이름 "취에 (까치)"는 행운이 올 것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이 자라온 곳에 카페를 열기로 정한 이유는 이곳에 온 손님 모두가 객지에 머물다 고향에 돌아온 듯한 편안한 느낌을 함께 공유하길 희망해서이다.

이곳의 입장비는 400 원으로 통일되어 있다. 과일 잼을 바른 구운 토스트와 드립 커피를 제공한다. 처음 방문한 고객은 바 테이블 자리에 매료될 것이다. 이 자리는 사장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장 가깝게 한 곳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손님과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서 겪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서로 교류하는 것이 이 카페의 경영방식 중 하나다. 이에 한 번 왔던 손님들은 다시 방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손님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 ☎ 타이베이시 신의구 중사오동루 5 단 236 항 3 농 19 호 (台北市信義區忠孝東路五段 236 巷 3 弄 19 號)
- 💰 인당 NT\$400
- 🕒 수, 금, 토, 일 11:00-14:30 / 14:50-18:00 (비정기적 개방, 예약은 FB 게시글 참고)
- 📍 MRT 「용춘」역 2 번 출구, 도보 약 4 분
- 🌐 www.facebook.com/Kasasagicoffee/
- 📞 완전 예약제 / 2 인 이상 예약 불가 / 영어, 일어 가능



小 隱 茶 庵

샤오인차안

찾주전자에 「미학」이라는 차를 우리다



- 📍 타이베이시 중정구 항저우난로 1 단 143 항 12-1 호
(台北市中正區杭州南路一段 143 巷 12-1 號)
- ☎ 02-2343-5859 🕒 13:00, 15:00, 17:00 이 시간에 예약 가능
- 🚇 MRT 「동먼역」 2 번 출구에서 도보 10 분
- 🌐 www.facebook.com/104341214322709
- 📱 inline.app/booking/xiaoyinteahouse

용강제 근처의 골목 안, 새하얀 벽면 그리고 원형 아치문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한다. 이처럼 고즈넉한 환경의 대만 차 전문 애프터눈 티 가게는 천장이 높고 매장엔 세 개의 테이블 밖에 없지만 인기가 많다. 젊은 사장은 가게를 오픈하기 전 인테리어 스타일리스트였다. 그렇기에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만의 고집이 있었고, 생활의 사소한 부분을 공간 배치에 스며들게 하였다. 일 년 전쯤 우연한 기회로 다예(茶藝)를 접하였고, 이내 창업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차를 매개체로, 취미를 생활화한 미학 공간 "샤오인차안(小隱茶庵)"을 차리게 되었다. 가게 안에는 주로 대만차와 다과를 판매한다. 가장 특별한 것은 대만의 맛이 가득한 애프터눈 티 세트이다. 찻물, 차색, 차향이 꿀과 같은 "용안화차(龍眼花茶)"에 "땅콩엿(花生貢糖), 호박씨(南瓜子), 동순빙(冬筍餅), 김가루망콩(海苔花生), 대추호두떡(棗泥核桃糕), 자소엽 매실(紫蘇梅), 계화 가래떡(桂花條糕), 산사떡(山渣糕), 독두떡(綠豆糕)" 중 네 가지 종류의 다과를 선택하여 곁들일 수 있다. 차를 마실 때는 술을 맛보는 것과 같다. 좋은 다구는 차의 풍미와 온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곳의 다구들은 손의 감촉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외형이 우아하다. 차를 우릴 때 차향이 가득한 것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준다.

산시(山喜) 세트 (차 한 주전자 + 디저트 네 종류)





Merci Vielle

2층에 숨겨져 있는 옛집 카페

타이베이 전역에서 가장 은밀하고, 가장 찾기 어려운 카페는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다. 카페는 참배 드릴 때 켜는 향과 등축이 가득한 사당 옆 2층에 위치해 있는데 간판도 없고, 초인종도 없고, 달인 느낌이 물씬 나는 숨겨져 있는 옛집 카페다. 지도를 따라 이곳의 일 층에 도착하여 코너를 돌면, 기다란 어둡고 캄캄한 긴 복도를 마주하게 된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엔 점쟁이 몇 분이 당신과 마주하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여기가 맞나 의심이 될 때쯤 이곳에 익숙한 한 노부인이 옆에 계단을 가리키며 "이곳으로 올라가세요!" 라고 할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작은 가게가 있을 것이다. 나무로 된 문을 열면 눈앞에는 각종 골동품과 오래된 중고 가구들이 진열되어 있다. 바닥은 전통적인 테라초가 깔려 있고 평온한 공간에는 이야기가 가득한 느낌이 든다. 이곳에는 시끄럽게 수다 떠는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나지 않고, 손님들은 일행과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고즈넉한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 메뉴 중 가장 특별한 것은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홍두오마수 단마이투스 (紅豆麻糬丹麥吐司, 팥모찌 덴마크토스트)"와 본인인 직접 우린 "모차 오레이 (抹茶歐蕾, 말차오레)"이다. 정말 두툽한 덴마크 토스트 위에 팔과 쫄깃쫄깃한 모찌가 꼼꼼하게 발려 있는 것이 정말 꼭 시켜봐야 할 인기 메뉴이다. 농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말차오레도 있다. 컵에 말차 큐브를 넣고 원하는 만큼 말차가루를 뿌린 다음 우유를 넣은 다음 층이 분리되어 있고 또 진한 말차향이 가득한 말차오레를 즐길 수 있다.



☎ 신베이시 반차오구 푸중로 50 호 2 층 (新北市板橋區府中路 50 號 2 樓)
 ☎ 02-8965-3906 ⌚ 13:00-22:00 📍 MRT 「푸중역」1 번 출구에서 도보 5 분

點 點 甜 甜
텐 텐 텐 텐



소산원 말차 시폰 케이크

타이베이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 디저트 가게는 "타이베이 서구 산책 (台北西區散策)" 에서 소개된 "하오추 블런치 카페 (好初早餐)" 의 사장 손에서 만들어졌다. 사장의 부인은 베이킹을 좋아해서 디저트 만드는 길을 열었다. 가게는 큰 도로 옆 골목 안에 은밀한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디저트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코너 양 옆으로 커다랗고 긴 나무들 창과 밝은 내부 인테리어를 볼 수 있어 행인의 눈길을 집중시킨다. 케이크 쇼케이스에는 당일 만든 각종 디저트가 들어있는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추천 디저트는 "오렌지 조림을 얹은 오렌지 파운드케이크" 와 "소산원 말차 시폰 케이크" 다. 이 두 가지 케이크는 몇 초 만에 품절이 되는 케이크로, 일찍 가지 않으면 먹어볼 수 없다. 이외에도 대만의 계절마다 계절한정 과일케이크를 선보이는데 시그니처 케이크 메뉴인 "오렌지 조림을 얹은 오렌지 파운드케이크" 는 일본의 우메조노 오렌지필과 버터 향 가득한 오렌지 파운드케이크다. 오븐에서 나왔을 때 쿠앵트로 시럽을 뿌려 풍미를 더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진한 오렌지 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테이블에 내놓기 전 살짝 구워 얇게 입힌 레몬 설탕과 오렌지 조림을 위에 올려 달달함과 상큼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소산원 말차 시폰 케이크" 는 일본 말차가루와 일본 쇼와 밀가루를 재료로 시폰 케이크는 건조하지 않고 딱딱하지 않은 촉촉한 시트에 진한 말차껌를 바르고, 마지막으로 달콤 씹사름한 말차 화이트 초콜릿 껌을 뿌려 보기 좋고 맛 좋은 시폰 케이크를 맛볼 수 있다.



오렌지 조림을 얹은 오렌지 파운드케이크

- 📍 신베이시 반차오구 광정가 45 항 2 능 2 호 (新北市板橋區光正街 45 巷 2 弄 2 號)
- ☎ 02-2960-2487 🕒 12:00-20:00
- 🚇 MRT 「반차오역」 5 번출구에서 도보 약 8 분
- 🌐 www.facebook.com/tentendenden/



파리스 루튀단까오



슈가 미스 Sugar Miss

대리석 마블 무니로 만든 디저트 전문점 슈가 미스는 독특한 모양의 대리석 문양 케이크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크레이프를 선보이며 타이베이 인기 디저트샵이 되었다. 매일 한정 수량만을 판매하는 대표 디저트 '도우푸옌 (豆腐岩)'은 솜사탕과 솟가루를 사용해 리얼한 대리석 무늬를 표현하였으며 촉촉하고 폭신한 쉬폰 케이크 속에 어우러진 녹차, 팥, 계절 한정 메뉴 중 원하는 맛을 고를 수 있다. '흑당찐주 아싸무나이차 (黑糖珍珠阿薩姆奶茶)'는 깊고 진한 향의 버블 밀크티껌를 품은 케이크로 흑설탕 버블과 곁들여 먹으면 풍부한 식감을 경험할 수 있다. 또 다른 인기 디저트 '파리스 루튀단까오 (大理石乳酪蛋糕)'는 핫카이드 치즈를 사용했는데 아랫층에는 바삭한 쿠키를 놓고, 겉에는 신선한 레몬으로 만든 요거트를 올려 진한 치즈에 새콤달콤함이 더해진 맛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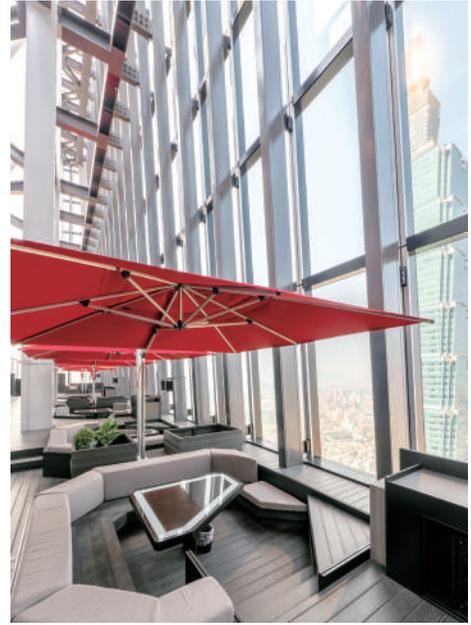
- 📍 타이베이시 따안구 광푸남로 290 항 4 호 1 층 (台北市大安區光復南路 290 巷 4 號 1 樓)
- ☎ 02-2771-5320 🕒 12:00-20:00
- 🚇 지하철 "국부기념관 역" 2 번출구 걸어서 3 분
- 🌐 www.facebook.com/sugamiss.tw/

흑당찐주 아싸무나이차



CÉ LA VI Taipei

신의 구 일류 백화점 48 층에 위치한 CÉ LA VI Taipei 는 360 도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 48 층은 대략 250 미터 고공 위에 있어 마치 타이베이 상공에 떠 있는 오아시스 같은 느낌을 준다 . 아시아 최고 외식 브랜드 일명 CÉ LA VI 는 불어 “C'est la vie(그것이 바로 인생이야)”이라는 어원에서 왔다 . 프랑스의 맛과 아시아의 문화가 결합하여 CÉ LA VI 만의 음식 생활 품격을 만들었다 . 메인 셰프는 아시아 식재료의 풍미와 프랑스 요리 방법 , 서양의 애프터눈 티 개념을 정교하게 활용하여 본재 느낌의 애프터눈 티 트레이에 8 개의 디저트와 4 개의 짭짤한 디저트가 놓여 있다 . 이 외에도 다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독창적인 칵테일이 있다 . 이곳에서 창가에 위치한 자리에 앉아 섬세한 애프터눈 티 디저트를 즐기며 타이베이 101 의 웅대한 전경을 감상해보자 .



- ☺ 타이베이시 신이구 송즈로 17 호 48 층
(台北市信義區松智路 17 號 48 樓)
- ☎ 0909-956-000
- 🕒 12:00-14:30 · 15:00-02:30 (월요일 휴무)
- 🚇 MRT 「상산역」 1 번 출구에서 도보 약 5 분



마르코 폴로 라운지 Marco Polo Lounge

상그릴라 파 이스턴 플라자 호텔 38 층에 위치한 " 마르코 폴로 라운지 " 는 전통적이지만 옛스럽지 않다 . 최근 몇 년간 유행하고 있는 현란한 글로벌 호텔들과 다르게 이곳은 평온한 동방적인 원소가 가득 하여 자연스럽고 사람들의 호감을 받고 있다 . 이곳은 애프터눈 티를 즐기며 완전한 101 빌딩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프랑스 디저트 메인 셰프가 공들여 만든 디저트를 101 빌딩 외형 모양의 트레이에 올려 각종 짭짤한 디저트와 차를 곁들여 타이베이의 유일무이한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다 . 높은 느낌이 나는 유리를 무대의 하늘 배경막으로 삼아 반 야외 보이는 자리에서 사계절 , 일출 , 일몰 , 화려한 야경 등 각각 다른 경관을 볼 수 있다 . 이곳에서 편안히 앉아 유일무이한 타이베이 전경을 보며 디저트를 즐기는 사람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 ☺ 타이베이시 다안구 둔화남로 2 단 201 호 38 층
(台北市大安區敦化南路二段 201 號 38 樓)
- ☎ 02-7711-2080
- 🕒 월 - 금 17:00-01:00 · 토 - 일 13:00-01:00
- 🚇 MRT 「류장리역」출구에서 도보 약 10 분





Let's Go 핑둥 (屏東)!!

리나리 (RINARI) 여행

타이완 동부 핑둥현 마자향 (瑪家鄉) 에 위치한 리나리 (禮納里) 마을은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도시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타이완의 다양한 원주민 부족 문화가 어우러진 풍경을 볼 수 있다. 마을 여행을 하면서 붉은 퀴노아의 고장을 방문하고,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운다. 파이완과 루카이 부족의 사냥 음식을 맛보며, 아이위 (愛玉 : 푸딩 같은 식감의 젤리) DIY 를 체험하고, 쯔쌀 도넛의 달콤한 맛을 맛볼 수 있다.

- 📍 핑둥현 마자향 마카자야제 1 호 (屏東縣瑪家鄉瑪卡札亞街 1 號)
- ☎ 08-799-2009
- 🌐 rinari.com.tw



야생 송어 알 전문가 (李日勝)

60 년의 역사를 이어 온 디화제 (迪化街) 의 '리르성 (李日勝)'은 송어 알 도매 및 말린 식품을 전문으로 다룬다. 또한 '햇빛에 말리는 전통방식'을 따르는 야생 송어알을 판매하기도 한다. 가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햇살에 말린 고급 송어 알과 쉽게 볼 수 없는 불에 구운 송어 알이 있다. 현대인의 건강 식습관과 선물 구매 수요에 부응하여 송어 알 XO 소스, 한입 송어 알 등 다양한 신상품을 연구 개발했다. 송어 알의 매력이 일본과 홍콩에도 퍼져 국제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다.

- 📍 타이베이시 따통구 디화제 1 단 203 호 (台北市大同區迪化街一段 203 號)
- ☎ 02-2557-0729
- 🌐 LRS1986.com
- 🌐 www.facebook.com/LRS1986/



여행 안전 개념을 세우다

교통부 관광청 안심여행 환경 추진

최근 글로벌 관광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교통부 관광청은 다양한 합법적인 숙박 인증과 평가 및 여행업종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바른 여행 안전 개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관광청 홈페이지의 "여행 안전 가이드"에서는 여행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광객들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킨다. 또한 관할기관은 검사 관리 실행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관광객들에게 안심하고 안전한 여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한다.



- 🌐 www.taiwan.net.tw



cha FOR TEA To Go (天仁喫茶趣 ToGo)

우수한 품질의 타이완 차를 맛보다

타이완의 좋은 차와 신선한 과일을 고집하는 "cha FOR TEA To Go"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맛있는 차음료를 출시했다. 꼭 맛봐야 할 음료로는 대표적인 타이완의 창의적인 차음료이자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우유 버블티', '타로 버블티'가 있다. 또한 자체 인기 차 제품인 '913 차왕 / 밀크 버블티'는 타이완에서 하루 주문량이 5,000 잔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고, 고산 우롱 차의 단맛 뿐만 아니라 인삼의 뒤끝이 단맛도 느낄 수 있다!



- 🌐 www.tenren.com.tw



MICHELIN Guide 2020



총 10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이베이 비즈니스 센터에 위치한 S HOTEL은 세계 유명디자이너 PHILIPPE STARCK가 직접 설계를 담당하였습니다.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드립니다.

S HOTEL

사랑과 기쁨의 서비스 정신으로 S HOTEL에 입주하신 고객들에게 마치 집에 계신 것처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호텔 로비부터 객실까지 고객 여러분의 요구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서비스해드립니다.

Address/타이베이시 송산구 둔화북로 150호 Tel/+886 2 2712 1777
Web/www.shotel.com E-mail/rs@shotel.com.tw





Book now at
www.eclathotels.com/taipei

éclat

TAIPEI • 台北

台北怡亨酒店



타이베이시 다안구 고즈낙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럭셔리한 인테리어와 귀중한 예술 작품 및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호텔을 독특하게 만든다.

60개 고급스러운 객실 시설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탁월한 숙박 경험을 제공한다.

Strategically located in the most fashionable and prestigious district of Taipei.
60 delightful guestrooms offer the very best in ambience and amenities.



No.370, Sec. 1, Dunhua S. Rd., Da-an District, Taipei City 106, Taiwan
타이베이시 다안구 둔화남로1단370호
Tel | +886-2-2784-8888 Fax | +886-2-2784-7888
Reservation | +886-2-2784-8118